

2025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임팩트연구보고



조명하다

조명하다

변화를 경험하다

연결이 시작되다

마음통일이 되다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임팩트연구보고 조명하다

-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과 청소년부모지원 킷메이커의 지원으로 수행된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임팩트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는 임팩트 측정 및 전문 연구 기관 (주)임팩트리서치랩이 수행한 문헌조사 및 이해관계자 설문 결과, 사업기관(아름다운재단, 킷메이커)의 주요 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Data Resource : 사업기관 제공 사업 결과 데이터, 이해관계자 설문 결과, 문헌조사 결과)

연구수행기관 | (주)임팩트리서치랩 · 연구책임자 | 신형상 대표이사/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책임연구원 | 김하은 부대표
공동연구원 | 유예슬 선임연구원, 표정완 연구원, 김지현 보조연구원 · 연구자문 | 서현선 한양대학교 사회력신용합전공 겸임교수

발간사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 [청소년부모]

2021년 3월 23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5장의 2 청소년부모 지원] 이 신설되기 전까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청소년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만이 정책과 사회에 존재하였습니다.

사회와 정책 그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은 채 가장 깊은 사각지대에서 작은생명을 품은 청소년부모를 만난 건 2016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청소년부모가 처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청소년이 왜 임신을하나? 책임도 못질 너희가 선택한 것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외면과 낙인 속에 숨어야 했고 그럼에도 생명을 지키고자 선택한 청소년부모의 위기는 부모와 아기에게 마치 어둡고 캄캄한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청소년 임신과 출산을 환영하고 지지할 수 있는 원가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보호자와 원가족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임신부가 출산을 결정한다 해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주거가 필요하지만 주거비용 마련은 물론 임신부인 청소년이 계약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주وسي 이전이 불가하거나 매우 높은 월세를 지불하거나 임시주거, 고시원, 모텔과 같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주거지 마련은 곧 생계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높은 월세는 물론 주거환경이 취약하다 보니 유지비용과 부대비용 지출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위기를 지원 받기 위해 정부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야만 신청과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족이 임신·출산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원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주وسي 주거에 살지 않는 경우 청소년부모 특히 취약도가 매우 높은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부모가 보호자나 성인의 도움 없이 안전한 출산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양육하는데 기반이 되는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016년부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를 지원해 온 '청소년부모지원 킴메이커'는 2019년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만나며 본격적으로 청소년부모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거 기반의 통합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임팩트연구보고 <조명하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주거를 기반으로 한 통합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안전한 출산과 성장, 자립을 지원한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부모 가정의 성장과 자립의 과정을 다양한 산식과 지표를 개발해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현장 중심·대상자 중심의 성과 측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있어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애쓰신 임팩트리서치랩 연구팀과 지난 7년간 사업을 지원해 주신 아름다운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청소년부모 지원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국회입법조사처와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나오기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주어 부모로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랑하는 청소년 부모들과, 그들과 함께 해 주신 킴메이커 멘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배보은 | 청소년부모지원 킴메이커 대표

축사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관심은 작은 빛이 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밝게 조명하고, 그 빛을 받은 곳에서 변화의 선순환과 연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청소년부모주거지원 킨메이커(이하 킨메이커)가 청소년부모의 곁을 지켜온 지 벌써 7년째. 지난해에는 그 동안의(2019~2023) 사업성과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주목하고 그 결과를 여실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킨메이커가 함께 만들어 온 지원사업의 발자취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킨메이커와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청소년부모를 조명하고 지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년간 79명의 청소년부모가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60명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이 미친 변화는 지원받은 청소년부모와 자녀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부모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같은 해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부모'라는 말조차 낯설던 때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3년 차에 벌써 공적 지원 제도화의 결실을 본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堂堂하게 인정받고 자신 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임팩트리서치랩은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에서 지난 수년간 아름다운재단과 킨메이커가 축적한 암묵지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해석한 내용을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현재와 미래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킨메이커의 경험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림으로써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한 현상이 조명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우리 사회의 모든 청소년부모가 사회의 행복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기초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신 킨메이커와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 기부자님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진아 |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함께해 온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청소년부모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임팩트연구보고 <조명하다>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6년간 아름다운재단과 킨메이커, 그리고 수많은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여러분이 청소년부모의 삶을 조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단순히 '위기'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주체입니다. 이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지며, 동시에 아직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은 '취약 계층'이 아니라 '성장계층'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부모는 주거 불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편견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한부모 중심의 지원에 머물러, 청소년부부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청소년 부모는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학업 연계 등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임팩트연구 결과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부모의 98.3%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했고, 심리적 안정, 양육 책임감,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삶의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개입이 아니라, 위기 진단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부모 지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임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5년간의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42억 원을 상회하며, 투자 대비 6.4배의 사회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부모 지원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하고, 지역·현장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적 인식 개선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자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보고서의 발간이 청소년부모 지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입법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 연구의 자리에서 청소년부모와 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모두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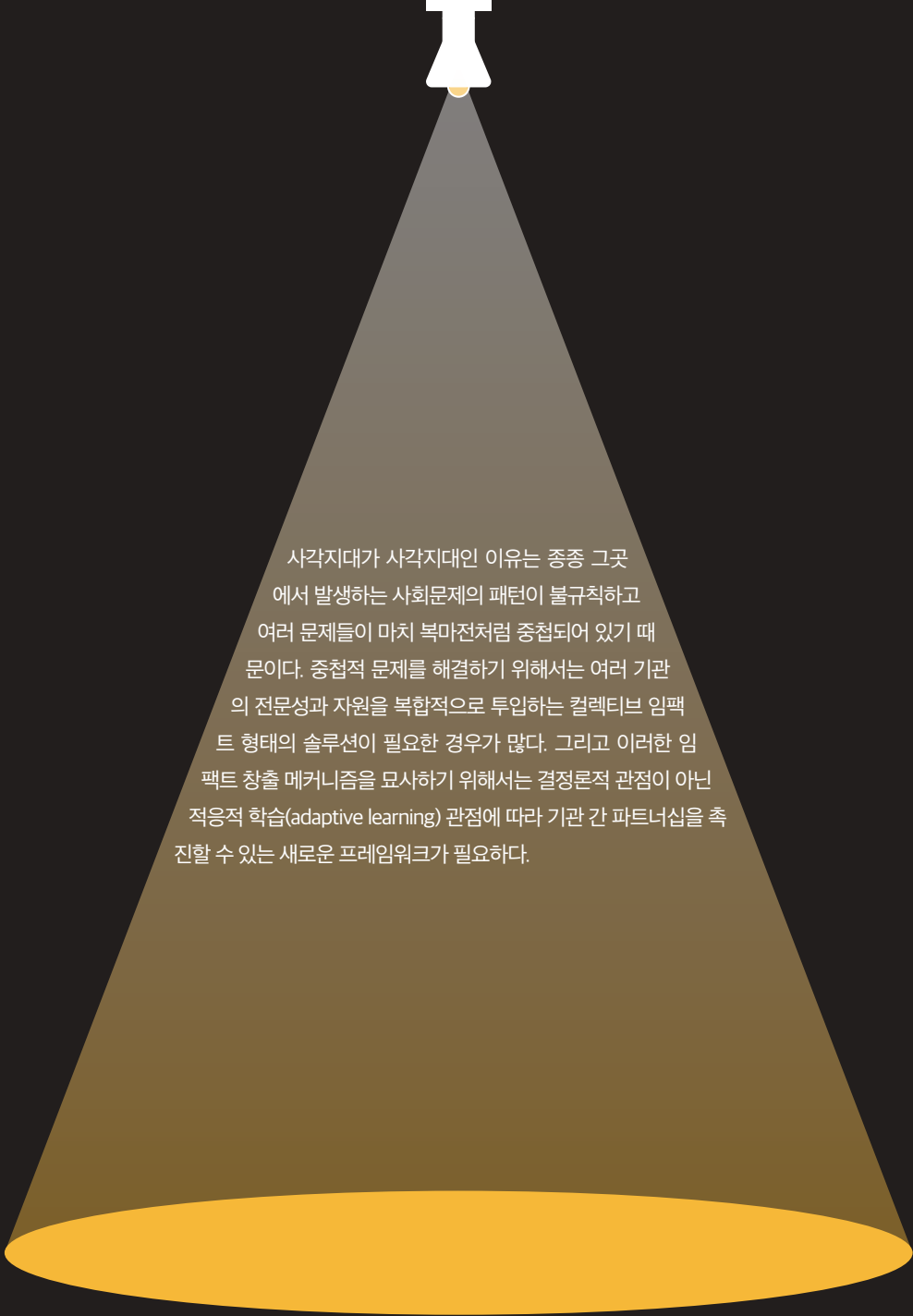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CONTENTS

사각지대 임팩트 연구의 여정	08
1. 청소년부모는 누구인가	12
2.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26
3.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사회성과	44
4. 결론 및 제언	68

사각지대 임팩트 연구의 여정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이유는 종종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패턴이 불규칙하고 여러 문제들이 마치 복마전처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임팩트 창출 메커니즘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관점에 따라 기관 간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① 사각지대와 임팩트

사각지대(死角地帶)에서 ‘사각’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각도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범위’를 의미한다. 사각지대는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사각지대의 특징은 ‘잘 보이지 않음(invisibility)’이며, 그 결과는 ‘잘 알지 못함(ignorance)’이다. 즉 어떠한 사회문제에 있어 ‘사각지대’라는 표현은 해당 문제에 대해 미지(未知)와 무지(無知)의 영역이 상당 수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각지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준다.

한편 **임팩트**에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한다. 예컨대 임팩트 투자자는 임팩트를 측정 가능한 결과(measurable outcome)로 보며,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변화 또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population-level or system-level change)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임팩트는 ‘타깃 사회문제가 해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지(Who), 둘째, 그러한 문제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발생하고 있는지(When/Where/Why), 셋째, 그들은 사회문제로 인해 어떤 형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What), 넷째, 해당 문제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인지(How Much)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각지대에는 이러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사각지대에서 작동하는 솔루션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 대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를 통해 지식을 쌓고 해당 문제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② 새로운 임팩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사각지대에서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자주 직면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로직모델, 변화이론과 같은 기존의 임팩트 프레임워크가 현실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입-활동-산출-결과-임팩트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구조로 임팩트 창출 과정을 설명하는 로직모델이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과 가정을 고려하는 후향적 디자인을 가진 변화이론은 변화의 흐름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사각지대가 사각지대인 이유는 종종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패턴이 불규칙하고 여러 문제들이 마치 복마전처럼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중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복합적으로 투입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솔루션의 임팩트 창출 메커니즘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관점이 아닌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관점에 의거하여 기관 간 파트너십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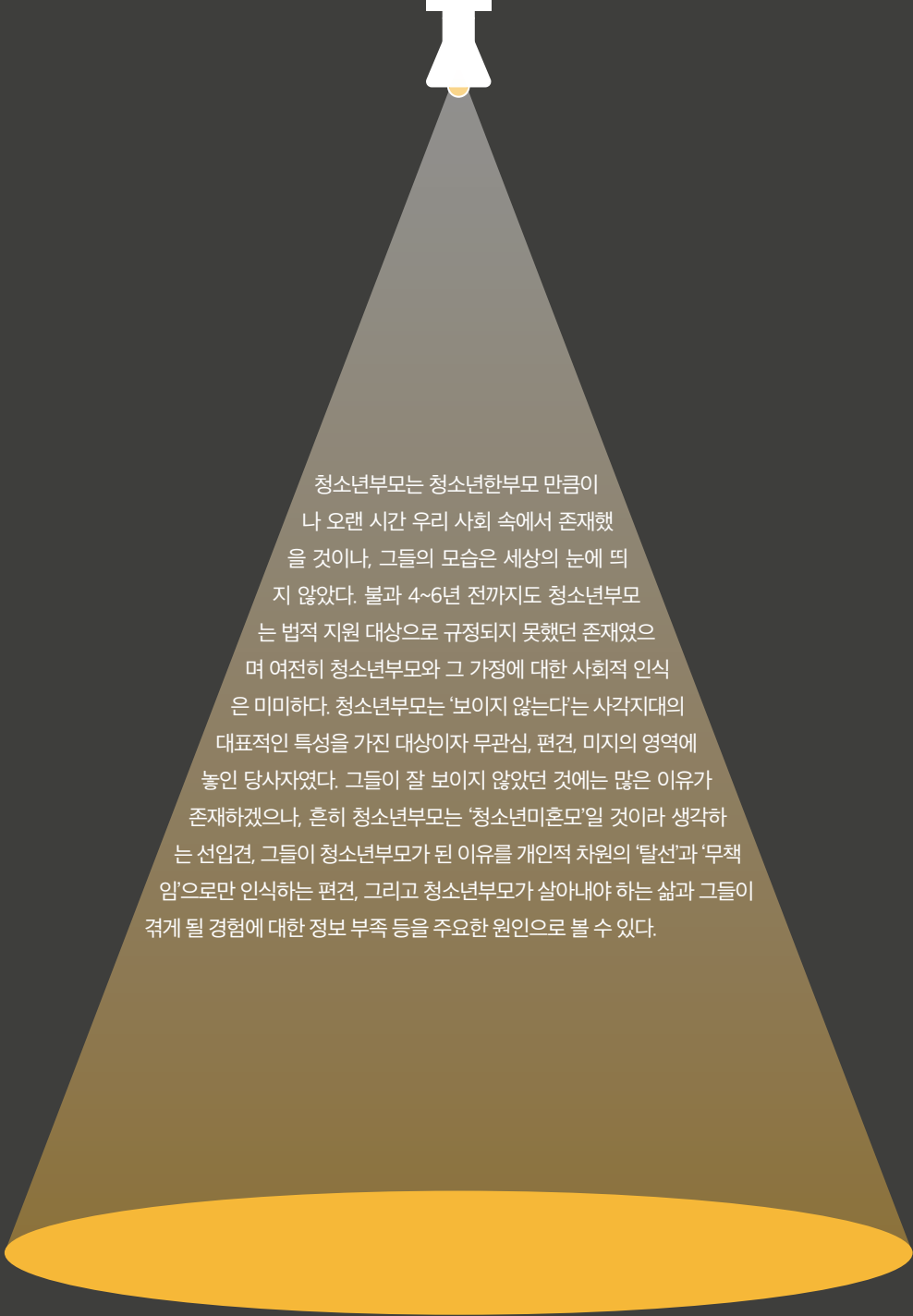
③ 임팩트 캔버스와 임팩트 내러티브

연구팀은 사각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팩트를 분석하고,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진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임팩트 캔버스(Impact Canvas)’**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상했다. **임팩트 캔버스는 임팩트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현장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맥락화된 임팩트 정보(contextualized impact information)를 조합하고 재구성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임팩트 캔버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에서 지난 수년간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가 축적한 암묵지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해석한 내용을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현재와 미래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④ 탐색적 연구의 과정과 목적

임팩트 캔버스를 채우는 데이터는 단순한 정량적 정보가 아닌, **사각지대의 맥락을 반영한 총체적 해석**이 담겨야 한다. 특히, 희미하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역을 ‘한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공개하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연구의 핵심은 이미 밝혀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 여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초대하는 데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임팩트 캔버스에는 이미 명료하게 보이는 영역도 있고, 희미한 구역도 있으며, 아예 여백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다양한 색채의 물감을 덧칠하면서 한 편의 유희를 완성해 가는 것처럼,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다양한 사람과 기관의 노력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식이 임팩트 캔버스에 축적되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맥락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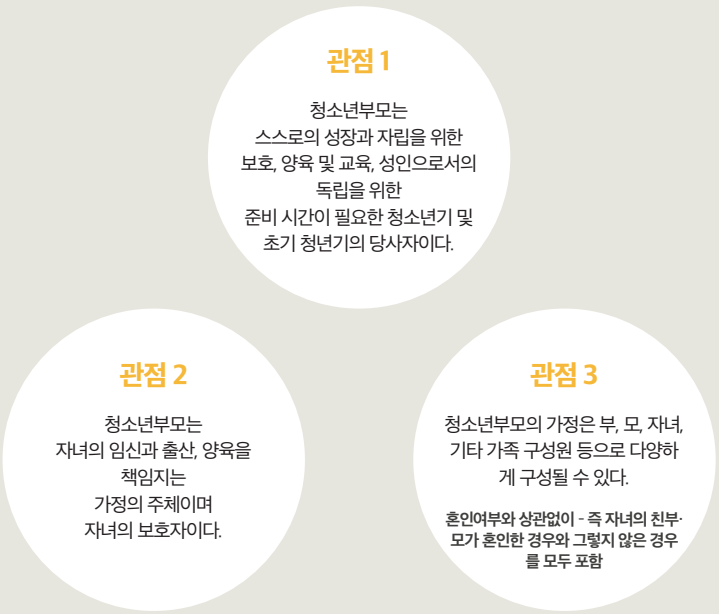
1 청소년 부모는 누구인가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만큼이나 오랜 시간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했을 것이나,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눈에 띄지 않았다. 불과 4~6년 전까지도 청소년부모는 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지 못했던 존재였으며 여전히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미하다. 청소년부모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대상이자 무관심, 편견, 미지의 영역에 놓인 당사자였다. 그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으나, 흔히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미혼모'일 것이라 생각하는 선입견, 그들이 청소년부모가 된 이유를 개인적 차원의 '탈선'과 '무책임'으로만 인식하는 편견, 그리고 청소년부모가 살아내야 하는 삶과 그들이 겪게 될 경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① 청소년부모 이해하기

연구팀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제도의 발전 과정, 그리고 기존 문헌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부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관점과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임팩트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세우거나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지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청소년부모가 겪는 다양한 위기 경험과 현장 지원 조직의 문제 해결 방식의 맥락과 의도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 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들이 가진 복합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팩트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는 자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초기 청년기의 당사자인 동시에 자녀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책임지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청소년부모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고 본 연구의 핵심인 <아름다운재단-킹메이커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임팩트와 생태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이해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 청소년부모를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주이자 가정의 주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써 균형 잡힌 임팩트 연구에 필요한 관점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다.



[청소년부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

② 사회 속의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말 그대로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적 정의는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4년째인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5장의2 「청소년부모지원」 신설을 통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그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미혼모 등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으며 청소년부모는 대부분의 정책과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예컨대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를 통해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이 제공되었지만, 청소년부모는 청소년한부모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여부에 따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다(은주희, 2019). 2021년부터 점차 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복지 제도는 아동·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주로 자녀 양육과 소득 기준에 따른 일반적 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청소년'이자 동시에 '부부', 그리고 '부모'인 청소년부모의 복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구분	상세 내용
제2조(정의)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5장의 2 청소년부모지원 지원분야 및 내용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2021.3.23.)]



[전문가가 말한 청소년부모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원 요소]

실제로 아름다운재단-킹메이커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8년까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거의 전무했다. 2019년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실태조사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존재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사례로, 이후 관련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부모지원' 신설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공식적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는 청소년부모를 '청소년'이자 동시에 '청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주거 안정과 자립이 더욱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인 여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혹은 '초기 청년'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규모나 생활 실태,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둘러싼 근본 원인에 대한 통계와 실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이전
국회나 정부 어디에서도 청소년부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모는 당연히 청소년미혼모
를 일컫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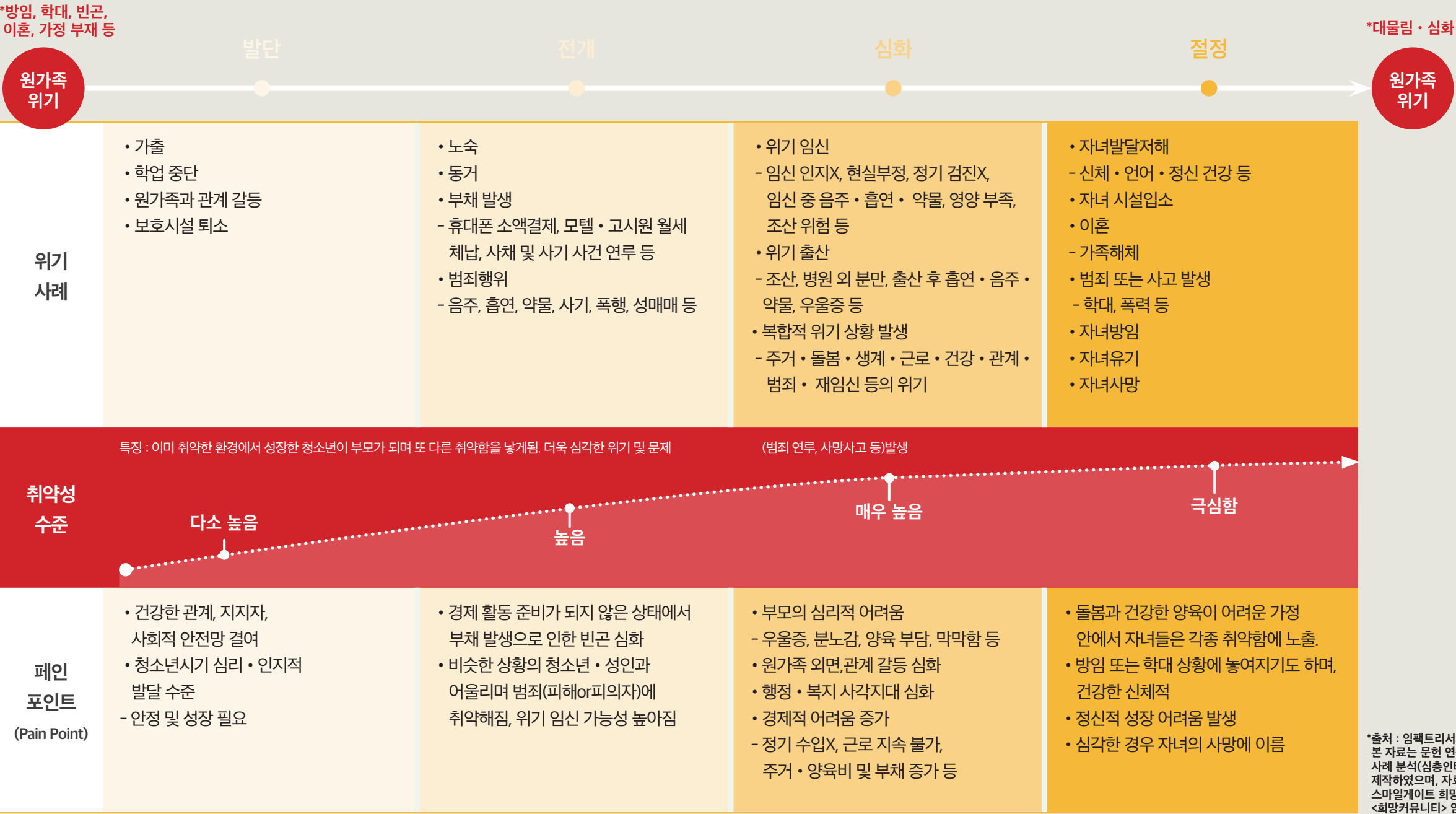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적 영역의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행된 '청소
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리매뉴얼북(2021)'은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2022)' 연
구 수행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로서 청소년부모 실태 파악, 설문지 개발
에 참고가 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
리매뉴얼북(2021)'은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민간, 공공 영역의 정책 현황 및 개선의 시사점 파악
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③ 사각지대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부모

한편 청소년부모를 몇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이 경험하
는 문제의 발생 원인과 위기의 심화 양상이 당사자마다 다르고, 무엇보다 사각지대의 많은
문제가 그러하듯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는 중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
소년부모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의 성장 여정과 개인적인 경험의
맥락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팀은 킹메이커가 만난 청소년부모의 사례를 중
심으로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의 특성 및 맥락을 담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를 분석하여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회복 및 전환의 여정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가 위기를 경험하는 여정과 위기 단계별 상세 경험 및 상황을 분
석하여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의 패턴>을 도출했다. 패턴의 내용이 모든 청소년부모
의 상황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에 기반해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청소
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 임신 및 출산 당시의 위급한 상황의 맥락이나 청소년부모의 성장 환
경 속 취약함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부
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그들이 겪는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라는 존재가 우리 사
회에서 왜 효과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④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의 패턴



(a) 발단

원가족 위기 및 불안정한 성장 환경으로 인한 단절과 고립

청소년부모의 위기 임신과 출산 배경에는 불안정한 원가족 환경과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2022)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4%가 우울 위험군에 속하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따돌림, 가출, 보호시설 경험 등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을 겪은 비율이 높았다. 특히, 부모와의 단절이나 보호시설에서의 성장 경험은 피임 및 임신 취약성을 높이고, 임신 후 더욱 심각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든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기가 단순한 청소년부모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불안정한 성장환경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비보호 상태와 사회적 고립은 청소년부모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는 딱 하라는 대로만 해야 했어요. 엄격하기도 했고 체벌도 좀 있었고 힘들어서 집에서 나왔어요. 부모님이랑 연을 끊었어요. 좀 안 좋게 자라서 못 해 본 게 너무 많았어요. 돼지고기도 여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에서 제공받은 주거지)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해산물도 거의 안 먹어봤어요. 놀이공원을 딱 두 번 가봤는데 그것도 가족들 말고 친구랑 간 거예요. 가족 여행을 한 번도 안가 봤어요.”

청소년부모 A

“잘 몰랐을 때는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임신, 출산을 했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원가족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혼과 재혼의 반복으로) 어머니가 계속 바뀌어서 여러 명이라든지요. 이 친구들은 가정에서 받은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위기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평범한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이유예요.”

킹메이커 사례관리 담당 선생님

(b) 전개

범죄 연루 및 위기 임신 가능성 상승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의 수준은 불안정한 주거 상황과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서 더욱 악화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첫 자녀를 출산했을 당시 부의 평균 연령은 24.2세, 모의 평균 연령은 21.6세로 나타났으며(이상정, 2022), 양측 간의 연령 차이는 약 3년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이들이 출산이나 양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팀이 만난 청소년부모의 사례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청소년 또는 초기 청년 두 사람이 만나면서 위기가 확대되고 심화된 경우였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범죄 피해 또는 가해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부모 개인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결국 위기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혼자 또는 둘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양상을 보였다.

“출산 당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출 후 원룸 오피스텔 1년 계약하며 생활했음. 공과금은 월 30만원을 초과하였고,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보증금에서 차감됨. 1년 계약 후 밀린 월세 공제 후 돌려받은 150만 원으로는 갈 곳이 없어 시택에 들어갔지만 갈등을 겪음. 그러던 중 남편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합의금으로 이사를 했지만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계약이 만료됨. 안전한 양육 환경 주거지와 생활안정이 필요한 대상임.”

청소년부모 C 주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中

“임신 중 구치소 수감 후 만기출소함. 원가족과의 연락 단절로 출소 후 주거부재로 인해 친구네 집에 있었음.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긴급 출산 후 주거지 부재하여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지원요청 음.”

청소년부모 B 주거지원사업 결과보고서 中

(c) 심화와 절정

위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 가중, 원가족 위기의 악순환 대물림 발생

임신과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과정이지만, 이미 많은 취약성과 문제로 인해 중첩된 위기 상태에 놓인 청소년부모에게는 기존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임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신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출산 직전의 상황까지 가거나, 임신 후 원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고립된 상황 속에 방치되는 등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출산 이후에도 산후조리나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 변화와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청소년부모 개인과 영유아 자녀 모두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나 사회적 지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에 따르면 임신 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부모는 40%, 학업 및 직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은 61%에 달했다. 청소년부모가 직접 자녀를 키우고자 근로활동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자녀의 돌봄을 맡길 곳이 없어 직업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와 가정의 위기로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 hoạch하지 않은 임신으로 주거·생계·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출산준비 못함. 출산 후 입양상담 받고 입양숙려기간 중 입양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함.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입양을 갈등함. 입양철회를 하고 싶지만 고시원에 거주해왔고 출산 준비도 하지 않아 조리원 퇴소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주거지와 생계비가 부재함.

청소년부모 D와의 상담일지 中

사람은 누구나 연령에 따라 발달과업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성숙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모가 됨으로써 자신의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양육이라는 또 다른 과업을 맞닥뜨리게 되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자녀는 언어발달이 느린 편임. 엄마가 공부하며 혼자 양육을 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주거지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임. 생계로 인해 돌아보지 못한 자녀는 돌이 되까지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됨. 애착 관계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로서 더 행겨주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듦.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마음도 여유가 없음.

청소년부모 I와의 상담일지 中

“청소년부모가 원가정에서 경험한 가정 폭력, 부모와의 애착 부족이 본인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고 미숙하니 아이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많은 청소년부모가 갖는 취약함이 원가족과 분리 후 일탈로 교육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하며 부모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 놓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는 발달 활동, 체형, 훈육 등을 하지 못하고요. 자녀들은 통합적인 발달 지연,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배보은 | 키페이커 대표

⑤ 청소년부모가 경험하는 위기의 특성과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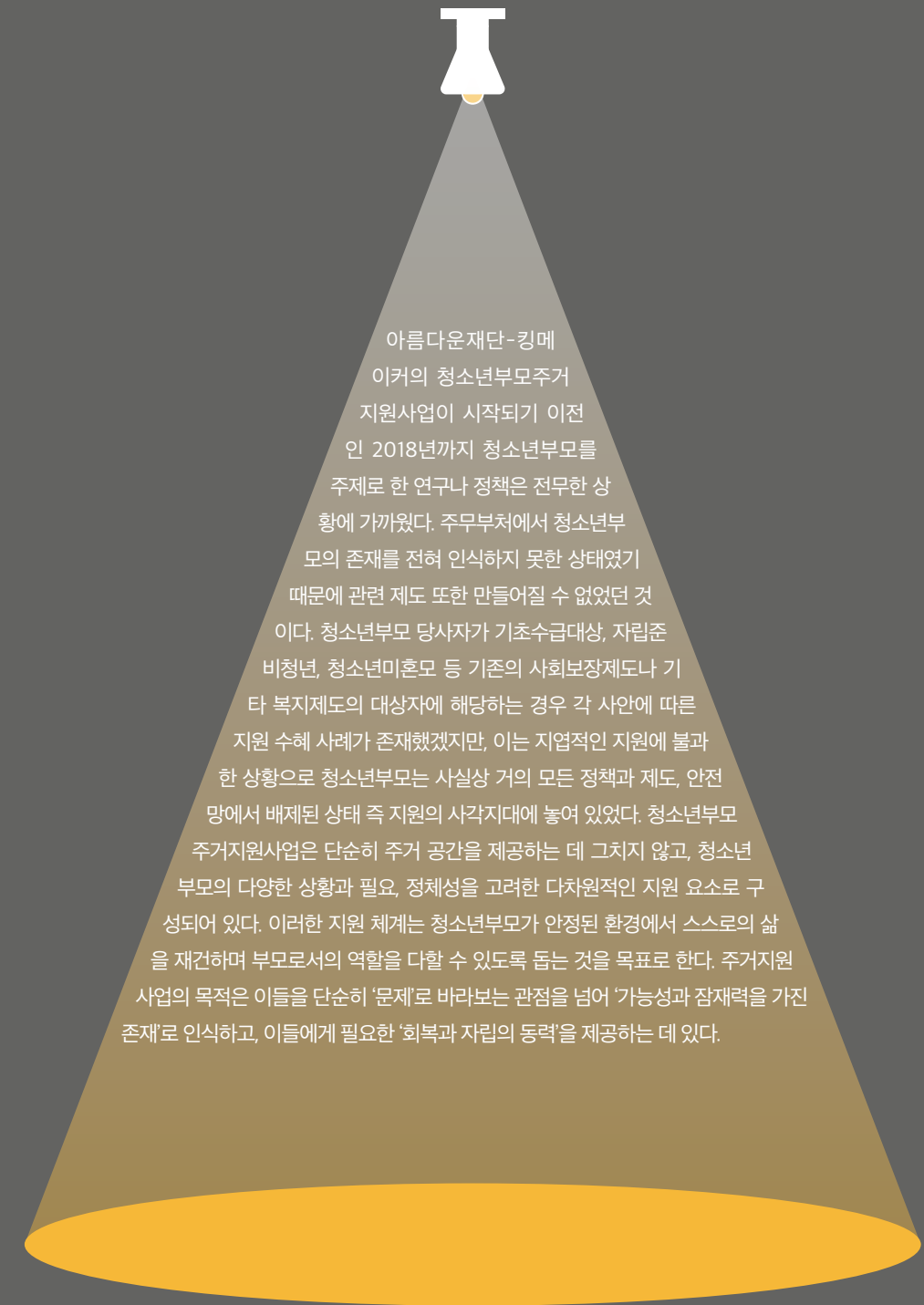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사각지대 청소년부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 상황은 시간을 X축으로, 위기상황을 Y축으로 가지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Y축은 기준점 0(중립적 상태)을 기준으로 양의 영역(긍정적 상태)과 음의 영역(부정적 상태)을 의미한다. 청소년부모 당사자가 겪는 중첩적인 위기는 부정적이거나 위급한 상황 즉 ‘음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때 ‘양의 영역(+)’은 누구나 쉽게 기대하며 목표로 삼는 영역이지만 청소년부모의 회복과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음의 영역(-)’의 존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원사업을 열심히 수행했더라도 대상자의 취약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더라도 여전히 양의 영역(+)으로 진입하기에는 결핍, 결여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부모의 경험과 위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지원방향성	상세 내용
악화 속도 저감 Deceleration	더 깊은 음(더 큰 위기)으로 가는 악화 속도, 즉 ‘음의 기울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멈추거나, 현재 위기의 수준 · 심각성을 완화하는 지원 (더욱 극심한 · Worst 결여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지원)
악화-회복 전환 Shift	음(위기)의 기울기를 양(회복)의 기울기로 끌어올리는 지원 (위기 악화 속도가 - 수준에서 0이나 +로 변화되는 지원)
회복세 지지 Back-up	양(회복)의 기울기가 다시 음(위기)의 기울기로 가지 않도록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지원 (0이나 -의 위기상황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출처 : 임팩트리서치랩 제작 자료
자료 (본 자료는 2022-2023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청소년부모 지원
<희망커뮤니티> 임팩트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음.

[청소년부모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전략]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① 배경과목적

(a) 주거 공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함께 키우겠다는 다짐이 무력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각지대 청소년부모에게 집중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며, 성년의제는 만 18세부터 부모의 동의를 받아 결혼한 경우 적용된다. 이보다 나이가 적은 미성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해 성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 계약과 근로 활동이 필수적인데, 미성년은 모두 친권자로부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따라서 위기 환경 속에 성장해 원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청소년부모는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주거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만 18세일지라도 혼인할 배우자가 없어 성년 의제조차 시도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는 '한부모 시설'의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다. 충분한 지원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청소년 부부(또는 혼인관계는 없지만 자녀의 보호자에 해당하는 두 당사자)가 한부모 시설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혼인 신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처럼 척박한 상황에서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등장은 청소년부모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실정에 맞는 유효한 지원을 시작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원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거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지만, 주거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독립된 세대주로서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이상정, 2023).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원사업 신청 당시 가장 필요성이 높았던 지원 중 상위 3개 요소는 모두 '주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는 이러한 주거 사각지대의 상황에 주목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을 찾고, 자립의 근육을 키워나갈 기반을 만들 고자 했다. 이들의 회복과 자립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의 결과였다. 주거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은 청소년부모에게 시급한 종합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의 현장이 되었고, 출산 직후 영아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도록 지지하는 전환과 학습의 공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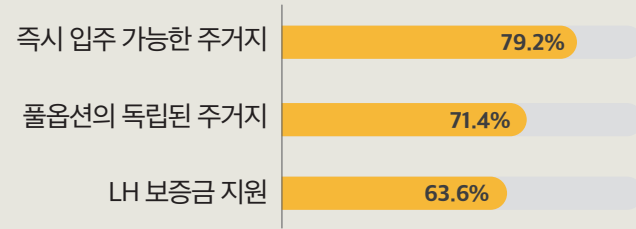
(b) 인격적인 관계와 동행

그러나 출산 이후 원가족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신생아를 돌보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부모로서의 삶이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저귀를 갈고, 제시간에 분유를 먹이고, 신생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면서, 초기 청년으로서 해내야 하는 학업과 경제생활을 병행하는 것.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제도나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해내는 것.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직 미성년으로서 성장과 자립의 준비 기반이 미흡한 청소년부모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다. 그래서 주거지원사업은 주거 공간에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채우는 활동을 포함한다. 주거 공간이 자녀와 함께 살아갈만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함께 채우고, 사례관리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시 관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집에 사람의 온기를 더한다. 또한 맞춤형 초밀착사례관리와 다양한 후속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삶에 존재하는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어낸다. 그들이 더 이상 고립과 방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기간 동안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예방하는 과정을 함께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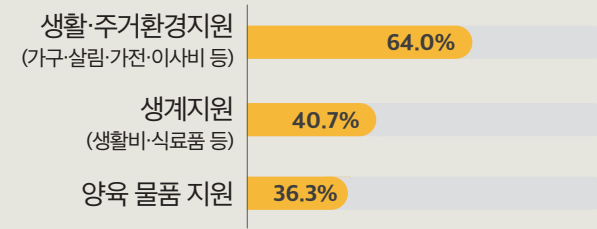
주거지원사업 신청 당시 가장 필요했던 지원 (n=43)

*중복응답 허용
*각 순위별 상위 3개씩 표기

1 순위



2 순위



3 순위



② 지원체계 및 성과

이처럼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 정체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청소년부모가 안정된 환경에서 스스로의 삶을 재건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지원사업의 목적은 이들을 단순히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과 자립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주거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되어 지난 6년간 청소년부모의 필요에 맞추어 지원 요소를 다각화하고, 사업 대상 지역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또한, 청소년부모와 관련한 실태조사연구, 사례관리매뉴얼북 발간, 국회간담회 참여, 민간단체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확산해왔다. 청소년부모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기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는 청소년부모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을 반복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변화의 과정에 기여해왔다.

“ 전에 살던 집은 들어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집 들어가면 우울해져서 찜질방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신병이 올 것 같기도 했어요. 돈이 한 톨도 없어서 아이는 24시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는 일을 했어요. 근데 월세 나가고, 어린이집 비용 나가니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수급 자격도 없어서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었어요. 주거지가 가장 필요했어요. 월세는 비싼데 아기랑 살 환경은 안 되니 같이 못 살았거든요.

청소년부모 I와의 상담일지 中

“ 집과 돈이 해결되면 청소년 부부간 싸움이 훨씬 줄고 가정 해체도 방지할 수 있어요. 사실 분유 한 통 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유홍비가 없다고 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되었으니 최소한 아이 병원비, 분유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거죠.

배보은 | 킹메이커 대표

“ 주거지가 제일 필요했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아기도 키울 수 있고요. 식품이랑 아기용품도 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그 중 주거가 아이를 키우는 데 제일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부모 D

지원방향성	주거지원사업 제공요소
위기의 악화 속도 저감 Deceleration	• 긴급 주거지원(119응급하우스) • 기본 살림 구축 지원(가전 • 가구) • 출산 및 양육물품 지원 • 생계비 및 식료품 지원 • 산모 및 자녀 의료비 지원 • 영아 자녀 양육법 코칭 • 범죄 연루 시 법률 지원 • 정부 복지 제도 편입 지원 • 원가족 • 배우자와 갈등 해결 지원
위기의 악화-회복 전환 Shift	• 장기 주거지원(인큐베이팅하우스) • 전문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 • 영유아 자녀 양육법 코칭 • 재정(소득 및 부채)관리 지원 • 진로 탐색 지원 • 사회적 관계망 지원 (인격적 돌봄, 관심, 믿음, 애착 경험) • 맞춤형 초밀착사례관리 등
회복세 지지 Back-up	• 주거자립 지원 (보증금 지원, LH임대주택 상담 등) • 영유아 자녀 양육 및 훈육법 코칭 • 진로 교육 및 활동 지원 • 자녀 돌봄 지원 • 맞춤형 초밀착사례관리 지원 등

(a)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주요 히스토리



(b) 사회성과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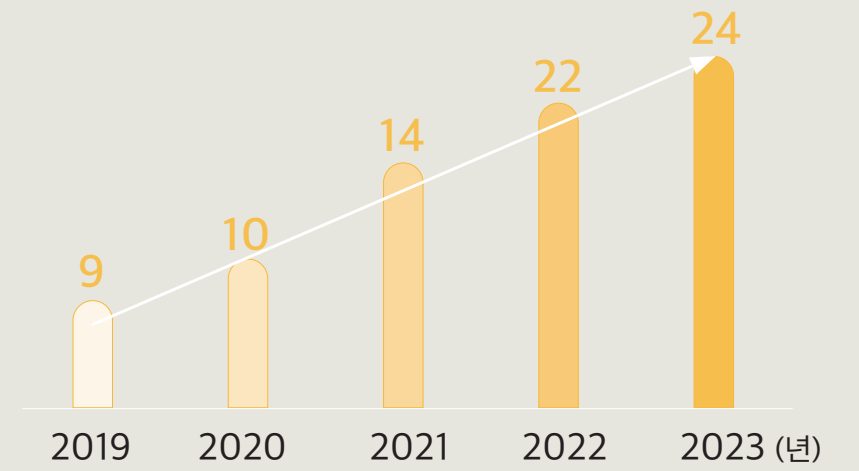
사회성과
창출배수

6.4배

전제 사업비
5개년 결산액 기준

지원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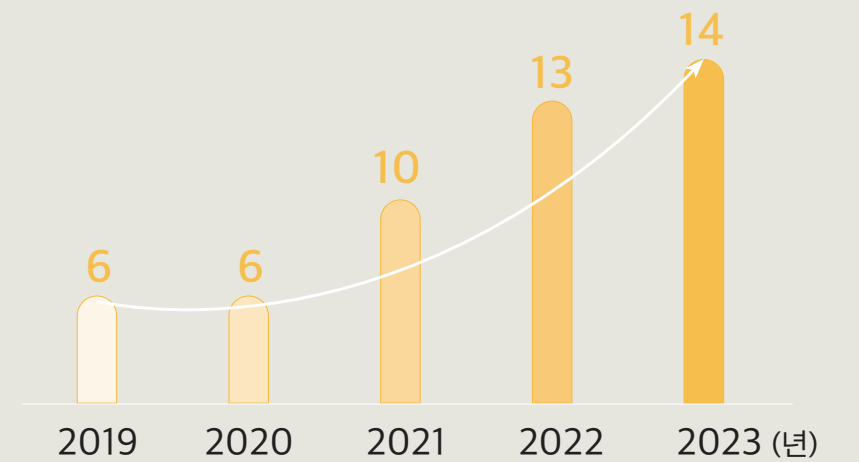
79명 (부모님 수, 누적)
60명 (자녀의 수, 누적)



1. 주거지원사업 참여 시작 연도 기준 인원(실인원)

지원
가정수

49가정 (누적)



- 이혼 등 가정해체 후 청소년부·모가 각각 지원을 받았어도 1가정으로 집계
- 주거지원사업 참여 시작 당시 가정 유형
 - 한부모가정 수: 19가정
 - 부부가정 수: 30가정 (사업 신청 당시 사실 법률·사실혼 관계일 경우 부부 가정으로 집계)

③ 주요 지원내용

(a) 주거 지원

주거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의 상황과 필요, 역량에 따라 단기·중장기·자립 지원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119응급하우스'는 킹메이커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입주자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즉시 입주할 수 있으며 육아용품과 생활 가전이 모두 구비된 풀옵션의 거주 공간이다. '인큐베이팅하우스'는 중장기 주거지원사업으로, 거주지가 없거나, 정부 및 민간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가정을 대상으로 독립된 풀옵션 주거지를 제공한다. 보증금 및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가전·가구 구매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도 함께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후기청소년지원'은 자녀 양육과 가정 유지, 자립 의지가 높은 가정 중 추가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주거비를 지원 한다. 세 가지 지원은 가정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위기 개입부터 장기적인 주거 안정까지 포괄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지원은 현재 주거 상태, 배우자 및 원가족과의 관계, 생계 수준, 임신 과정과 출산 준비 현황 등 당사자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초기 상담과 사례 사정을 통해 시작된다.

구분	119 응급하우스	인큐베이팅하우스	후기청소년 지원
지원대상	• 사각지대 위기 임신 • 출산 청소년부모 (자녀나이 12개월 이하)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20~24세 청소년부모 (자녀나이 12개월 이상)
지원내용	• 단기주거지원 • 긴급물품지원 • 긴급생계지원 • 긴급돌봄지원 • 멘토링상담	• 보증금(최대500만원) • 월세 • 가전, 가구, 생활용품 • 주거 부대비용 (이사비, 입주청소비, 중개수수료 등)	• 주거상향 보증금 (최대500만원) •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기간	1개월~최대 6개월 (임신, 출산 등 해당시)	1년~최대 2년	상시

출처: 2022 청소년부모주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킹메이커

(b) 맞춤형 초밀착사례관리

초밀착사례관리는 청소년부모가 회복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함께 채워 나가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지원 체계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혼자 아닌 누군가와 함께 회복하는 경험을 쌓고, 스스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초밀착사례관리는 단순히 특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경험과 도움을 함께 채워주는 '전인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정기적인 만남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일상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상시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청소년부모 가정은 주 1회의 정기 사례관리 일정을 갖지만,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학업, 양육, 돌봄, 주거 관리, 자금 및 생계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구분	사례관리	자립지원
지원대상	119응급하우스,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가정	
지원내용	• 가족역량강화(가족상담, 양육코칭, 돌봄지원) • 생활역량강화(생활코칭,재정관리) • 주거안정강화(방문멘토링, 주거관리코칭) • 심리정서강화(개인상담, 부부상담) • 멘토링상담	• 자조모임 • 자조활동 • 자립역량강화(근로,진로 멘토링) • 교육지원(검정고시,수능학습지원)
지원기간	주거지원기간 내 상시	

출처: 2022 청소년부모주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킹메이커

(c) 지식 확산과 생태계 조성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단순히 개별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부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는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를 둘러싼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연구보고서 발간, 정책 제언, 민간 지원 조직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에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중에서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수행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는 청소년부모의 존재와 위기 상황을 공론화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과 향후 지원 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 첫 연구였다. 이 연구는 이후 많은 후속 연구 및 정책 제언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명	주요내용	연구수행기관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 	• 청소년부모 개념 첫 정립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통한 청소년부모 생활 실태조사 • 청소년부모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 경험 분석(2020) 	•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기존 주거지원정책의 개선안, 청소년부모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도출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리 매뉴얼북(2021) 	• 현장기관 맞춤형 청소년부모 지원 및 개입방법 매뉴얼화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인큐베이팅 하우스 청소년부모주거지원 사업보고서(2012) 	• 인큐베이팅하우스 사업 내용 및 지원 현황 소개 • 청소년부모 변화 스토리 • 현장 활동가 스토리 • 기부자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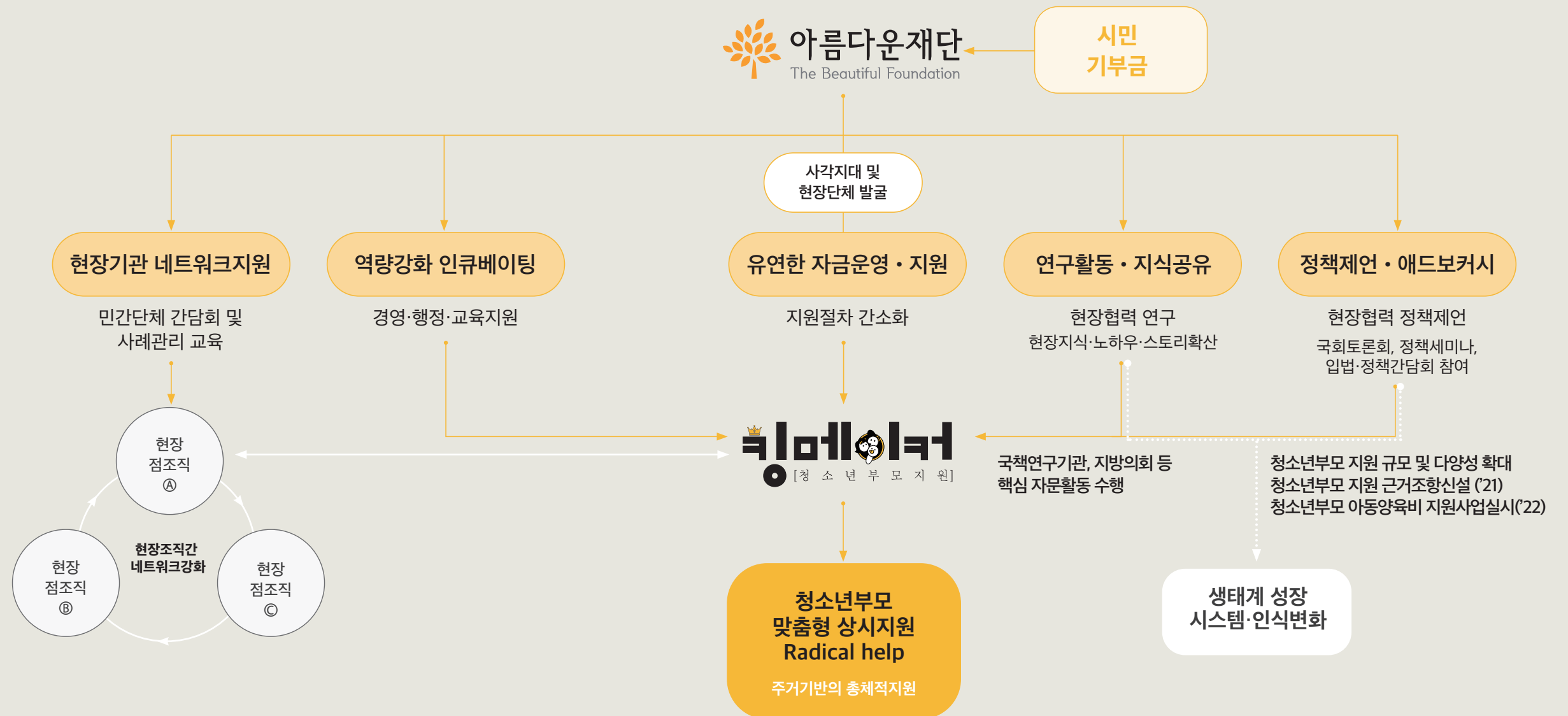
④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의 파트너십

(a) 래디컬 헬프 종합 지원 체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협력 구조와 문제 해결 방식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공공혁신 연구소의 힐러리 코탐 교수가 제시한 '래디컬 헬프(Radical Help)'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래디컬 헬프는 기존의 행정 편의적이고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본질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거지원사업이 래디컬 헬프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현장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체는 있지만 청소년 부모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었어요. 실무자 한두명의 헌신과 의지로 움직이는 영세한 작은 단체들을 찾게 되더라도, 행정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등 협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각지대 문제를 지원할 때 협력사업을 통해 사업의 기획부터 행정, 마무리까지 같이 해내려고 해요. 영수증 하나도 같이 살펴보면서요. 사각지대로 갈수록 현장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직들의 상황은 열악해요. 현장이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현장 조직을 위한 인큐베이팅 목적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해요.

- 아름다운재단 인터뷰 중



(b) 아름다운재단의 사각지대 조명 전략

아름다운재단은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수면 위로 올라오기까지 필요한 '회복과 준비의 시간'과, 생태계 차원의 변화에 필요한 '학습의 시간'을 이끌어 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각지대와 밀접하게 연결된 빈곤과 주거 불안정의 문제에 주목하여 '주거 지원'을 사업의 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2000년 시작된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과 2004년 시작된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관점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재단은 사각지대 당사자에게 필요한 회복과 준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현장 조직과 활동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유연한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한 문제 대응과 당사자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언제든지 위태로운 출산과 양육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부모를 신속히 지원하는 데 필수 조건이 되었으며, 킹메이커와 같은 현장 조직이 청소년부모를 꾸준히 지원하고, 지원 규모와 전략을 개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청소년부모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처럼 더 정형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사업 운영 규정상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겠죠.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긴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는 형태로 지원해야 하죠. 어떤 사업은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발표해서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부모 사업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아름다운재단 인터뷰 中

우리나라의 인식상 주거는 거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거의 공공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할 때 '현장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해서 특별공모사업을 했고, 6개 단체가 선정되었어요. 공모사업 후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로 킹메이커의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인터뷰 中

(c) 킹메이커의 '가정'단위 지원전략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는 2015년 설립된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부모 전문지원단체이다. 2016년 위기청소년 지원을 시작으로 '청소년부모의 안전한 출산, 청소년부모 가정의 성장과 자립'이라는 미션 아래 지난 9년간 사각지대 청소년부모가정의 출산·양육·성장을 지원해 왔다. 2017년에는 '킹메이커 라운지'를 개소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원사업은 킹메이커가 가진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식과 다년간의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맞춤형 상시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의 디테일한 지원 요소와 짜임새는 '킹메이커가 일하는 방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회복과 자립 과정을 염두에 둔 유연하고 세심한 접근 방식으로, 청소년부모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킹메이커는 청소년부모가 '가정' 단위로 함께 자녀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무리 어렵고 미숙하더라도,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대화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한 가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며 예방하는 순환적 지원구조를 완성해 간다. 단 한 번의 개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임팩트의 길이(duration), 즉 창출된 변화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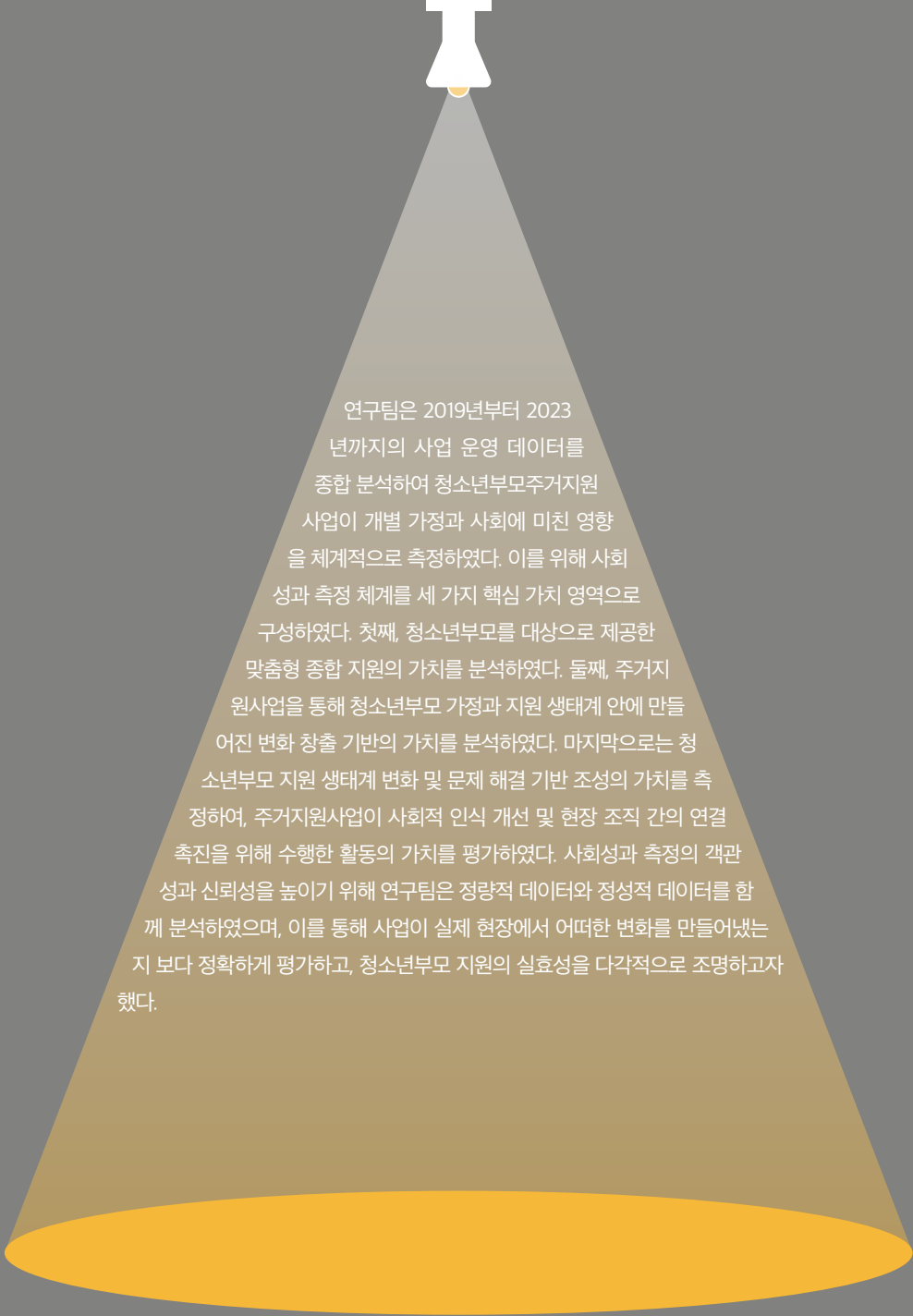
“킹메이커에서 정부 지원제도에 신청하자고 하셔서 같이 신청도 했고, '이때쯤 수급비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보자' 하시면서 돈 관리를 도와주셨어요. '생계급여는 이 정도 들어올거야. 매달 이 정도의 수급비가 있으니 적금은 어느 정도 들고, 남은 돈은 이런 용도로 쓰자' 하시면서 같이 고민해주셨어요.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기관도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 연락해서 빚도 많이 갚았어요.”

청소년부모 C

결국 가정해체가 되더라도, 주거지원을 받는 동안 가정을 유지했다면 그 기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은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청소년부모들이 처음부터 가정으로서 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거지원을 통해 부부로서 2~3년간 아이를 함께 양육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 가정해체가 되더라도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주거 기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배보은 | 킹메이커 대표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의 사회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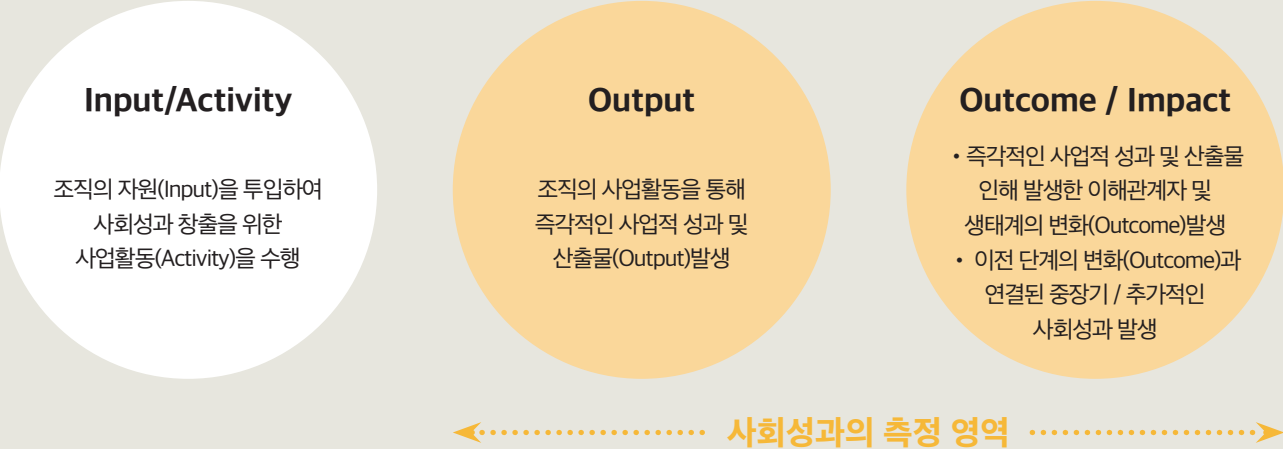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
년까지의 사업 운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청소년부모주거지원
사업이 개별 가정과 사회에 미친 영향
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
성과 측정 체계를 세 가지 핵심 가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한
맞춤형 종합 지원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거지
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과 지원 생태계 안에 만들
어진 변화 창출 기반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
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변화 및 문제 해결 기반 조성의 가치를 측
정하여, 주거지원사업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현장 조직 간의 연결
촉진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사회성과 측정의 객관
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함
께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
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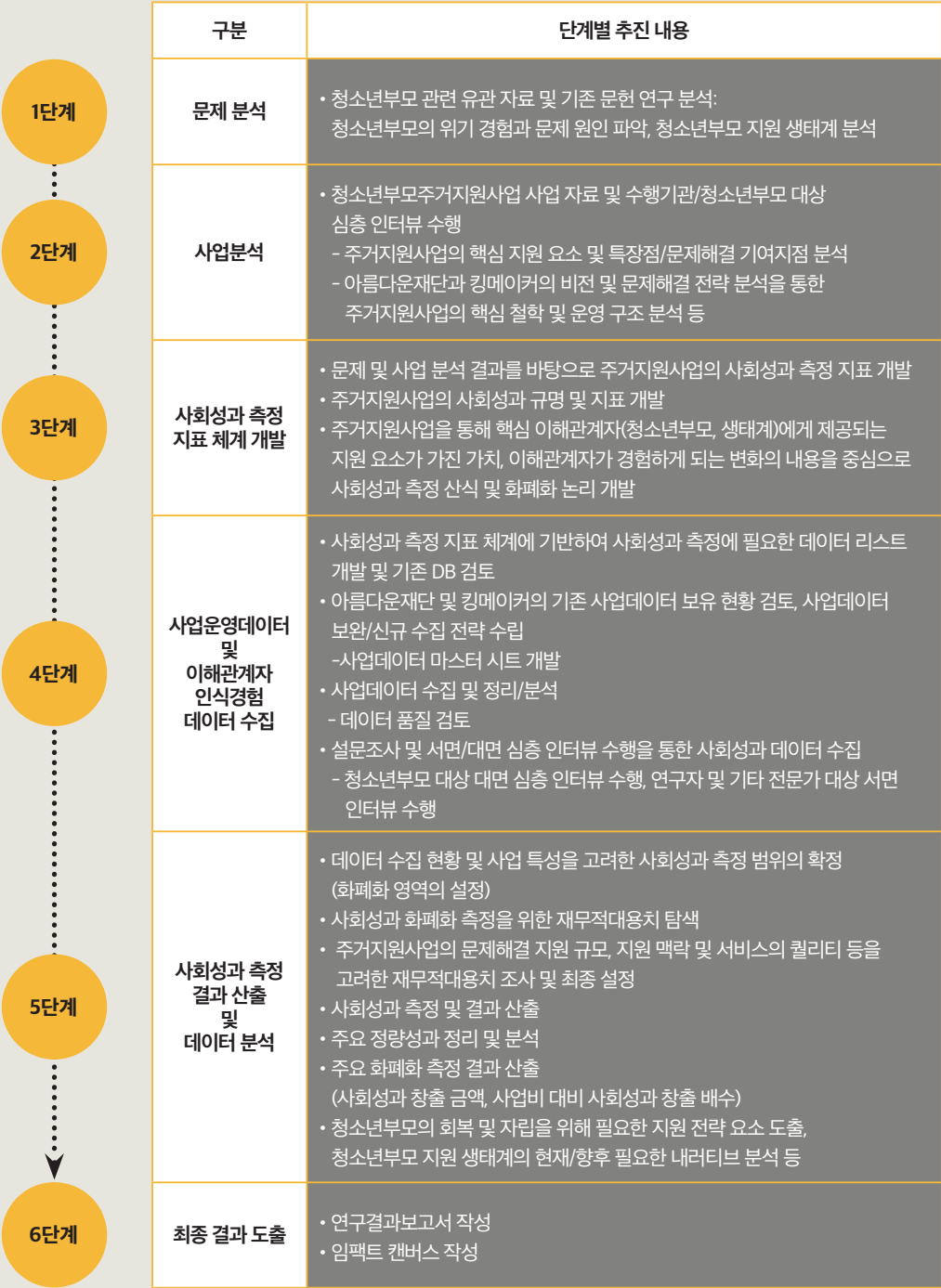
①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의 사회성과 측정 연구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이 만들어낸 사회성과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성과 측정 체계를 개발하였다. 사회성과는 변화이론의 5가지 구성요소 중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 성과를 포함하며, 연구팀은 주거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한 솔루션의 가치, 청소년부모가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의 가치, 그리고 주거지원사업이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에 만들어낸 변화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측정했다.

한편, 사회성과 측정 결과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유치와 신뢰 확보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적으로도 미션과 전략, 핵심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직이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측정할 경우, 실제 성과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인센티브 왜곡이나 미션 드리프트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보다 정확한 사회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데이터 분석 및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사업 현장의 맥락을 반영한 측정 논리를 수립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 및 킹메이커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주거지원사업의 문제 해결 맥락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이를 측정 과정에 활용했다.



(a) 사회성과 측정 연구 단계별 프로세스



(b) 사회성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분	데이터 수집 내역 및 상세 내용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자 마스터파일 개발	• 지원 대상자별 부모 당사자 및 자녀에 대한 기본정보, 지원사업 신청 당시 위기 경험의 내용, 지원사업 연결채널 • 지원 상세 내역 - 총 지원 기간, 지원시작 및 종료시점, 공간 거주 기간, 보증금 수혜 내역 등 • 정부지원편입 내역 및 현황 - 청소년부모 가정으로서 생계 및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원 상세 내용은 무엇인지 등 *기준 사업데이터 전체 수집 및 재구성 후 지원사업 현장 방문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데이터 보완 수행
킹메이커의 사례관리 수행 자원 분석 데이터 시트 개발	• 킹메이커의 사례관리 수행 자원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 사례관리 지원 담당자 및 전문가 보유 현황, 인원별 경력 등의 특성 분석
청소년부모의 위기 및 변화 경험 조사를 위한 설문도구 및 심층 인터뷰 질문 개발	• 주거지원사업 참여 청소년부모의 기본정보 - 가족 구성,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및 근로유형, 소득수준 등 • 청소년부모 대상 주거지원사업 신청 당시와 현재의 거주 상태 및 생활, 변화 경험, 제도적 지원 수혜 경험/상세 수혜 내역, 지원 니즈 - 50개 문항 개발, 온라인 설문조사 수행 • 설문 참여 인원 41명(설문 응답률 약 77%, 32개 가정 참여) - 2019~2023 총 지원 가정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가정의 데이터 확보 • 주거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인식/건강상태/일상 변화에 대한 의견 - 대면 및 비대면 심층 인터뷰 수행: 총 12명
청소년부모 관련 지식 개발 및 확산 참여 전문가 대상 서면/대면 인터뷰 질문 개발	• 청소년부모 이슈 실태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 •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기여와 역할, • 청소년부모 연구 수행 경험 및 향후 지원/연구 보완 필요 지점 등

(c) 사회성과 측정 지표

핵심 사회성과	지표명	측정산식 및 내용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종합 지원의 가치	1. 청소년부모 위기 상황 초기 진단 및 신속 대응 지원의 가치	① 지원 대상자 총 인원(명) × 지원 초기 단계 청소년부모 맞춤형 위기 분석/대응 상담 서비스 인당 평균 제공 시간(시간) × 청소년부모의 위기 해결 및 지원 자원 연결을 위한 초기 전문 사례관리 및 지식제공 자문의 가치(시간당)
	2. 청소년부모 학업 및 진학 지원의 가치	② 킹메이커 지원 청소년부모 중 검정고시 응시자 수(명) ×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을 위한 과외 서비스 12개월 제공의 시장가격
		③ 킹메이커 지원 청소년부모 중 대학 진학 준비자의 수(명) × 대학교 입학을 위한 밀착 서비스 제공의 시장가격
	3. 청소년부모 대상 상시 사례 관리 지원의 가치	④ Σ (사례관리 선생님의 월 상시 대기 시간 × 12개월 × 사례관리선생님의 시급 × 사례관리 선생님별 해당연도 투입률(%))
	4. 청소년부모 긴급 주거 공간 지원의 가치	⑤ [119 응급하우스] 119 응급하우스 지원 인원 수(명) ×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정의 평균 거주 기간 (3개월) × 유사 공간 평균 숙박 또는 거주 소요 비용 (월평균)}
		⑥ [인큐베이팅하우스]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인원 수(명) ×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정의 평균 거주 기간 (12개월) × 유사 공간 평균 거주 소요 비용 (월평균))
청소년부모 관련 인식 개선 및 현장 지원 활동의 가치	5.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주거 환경 구축 지원의 가치	⑦ [기타 주거상향지원]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주거환경 개선비 총액
	6. 청소년부모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 제공 성과	⑧ [후기청소년 주거상향지원] 후기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보증금 등의 지원금 총액
		⑨ 보증금(목돈) 제공을 통해 후기 청소년부모가 절약하게 된 기회비
		⑩ 주거지원 종료 시 이체 또는 계약주체 전환을 통하여 청소년부모가 수령한 보증금 총액
		⑪ 보증금(목돈) 제공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절약하게 된 기회비용
	7. 청소년부모 이슈 해결을 위한 현장조직 연결 및 관계 형성 지원의 가치	⑫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비 총액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과 지원 생태계 안에 만들어진 변화 창출 기반의 가치	8. 아름다운재단 및 킹메이커가 참여/운영한 언론홍보활동의 확산가치	⑬ {(현장취재를 통한 기사 작성 평균 시장가격+언론사별 배포 노출 평균 비용) × 게시된 언론보도 자료의 개수(언론사별)} × 주거지원사업 또는 킹메이커의 기여도(%))의 총합
	9.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제도권 편입 성과	⑭ 연도별 총 지원대상자 가정 수×Σ (정부 보장제도별 청소년부모 가정당 평균 수혜비율(%))× 청소년부모 가정당 평균 수혜 금액×킹메이커의 기여도(%)
	10. 청소년부모 이슈 해결을 위한 자원 유입 성과	⑮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한 현장조직(킹메이커)의 사회문제 해결 자금 유치 성과 × 주거지원사업의 기여도(%)

(d) 사회성과 측정 주요결과

연구팀은 총 10개의 핵심 사회성과 지표와 15개의 화폐가치화 산식을 적용하여, 사업이 창출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측정 대상은 ① 청소년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가치, ② 청소년부모의 제도권 편입 효과, ③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조성 및 자원 유입 효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서 발생한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성과 측정 결과,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지난 5년간 총 42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사업의 사회성과 창출 배수는 연평균 약 6.4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에 1백만 원이 투자될 때, 투자금 대비 약 6.4배의 사회적 가치(연평균 640만 원)가 창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성과 창출 배수

6.4배

 49가정
주거지원
중복 참여 이력 미포함

 139명
총 지원 인원
청소년부모 79명, 자녀 60명

10가지 핵심 사회성과지표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종합 지원의 가치

- ① 청소년부모 위기 상황 초기 진단 및 신속 대응 지원의 가치
- ② 청소년부모 학업 및 진학 지원의 가치
- ③ 청소년부모 대상 상시 사례 관리 지원의 가치
- ④ 청소년부모 긴급 주거 공간 지원의 가치
- ⑤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 환경 구축 지원의 가치
- ⑥ 청소년부모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 제공 성과

청소년부모 관련 인식 개선 및 현장 지원 활동의 가치

- ⑦ 청소년부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직 연결 및 관계 형성 지원의 가치
- ⑧ 아름다운재단 및 킴메이커가 참여/운영한 언론홍보활동의 확산가치

청소년부모 가정 및 지원 생태계 변화 창출 기반의 가치

- ⑨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제도권 편입 성과
- ⑩ 청소년부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유입 성과

②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임팩트 캔버스와 임팩트 네러티브

(a) 임팩트 캔버스

임팩트 캔버스에는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발견되고 조명된 문제에 대한 천착,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청소년부모 차원의 미시적 변화,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지원 생태계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거시적 변화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임팩트 캔버스는 단순한 연구 결과의 정리가 아닌, 주거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직접 관찰한 현실과 그 속에서 만들어낸 의미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즉, 임팩트 내러티브를 담은 기록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가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조명되었는지, 주거지원사업이 이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여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지원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팩트 캔버스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일종의 ‘오픈 소스(Open Source)’이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부모 지원에 관심을 가진 개인과 기관이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과 실행 전략을 고민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파노라마 뷰

—
임팩트 캔버스의
전체 구조 확인

내러티브 뷰

—
임팩트 캔버스
내러티브 2가지 흐름 확인

디테일 뷰

—
임팩트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상세 데이터

*임팩트 캔버스는 아름다운재단과 킴메이커가 함께 걸어온 임팩트의 여정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데이터와 내러티브, 이미지 요소를 활용해 사회문제의 배경과 상황, 맥락을 함께 표현하며,
사각지대 청소년부모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생태계와 당사자의 변화 과정을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

[정확한 측정과 결과 해석을 위한 유의사항]

본 연구팀은 사회성과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와 투입 비용을 대응시켜 사회성과 창출 배수를 산출했다. 이를 위해 사회성과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분자와 분모의 항목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화폐화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의 품질 등을 고려해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제외된 활동은 정량·정성 데이터를 활용해 보완했다. 이때 사회성과 창출 배수는 투입 자원 대비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졌는지, 즉 사회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사업 활동 및 지표별 사회성과의 상세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에 대한 배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9-2023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던 당사자와 이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해상도를 높여왔다.

임팩트캔버스

안개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무기력하던 청소년부모

안개를 걷어낸다

사각지대 청소년부모의 목소리를 발견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인지 수정
개선, 협력 모색, 지원의 제도화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가시성을 높임
개인별 맞춤형 진단·사례관리는 '청소년부모' 이름에 가려진 각자의 상태와 필요를
프리즘처럼 구체화하고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냄

보이지 않던
청소년부모를

조명하다

- '청소년부모' 용어 최초 사용
연구 보고서 개발 및 확산
- 『2019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2020 킹메이커 현안분석 청소년부모
정책소의 실태와 개선방안』

위기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변화를 경험하다

- 주거지원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변화
- 주소지와 거처를 얻어 위기에서 분리되고,
안전망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음
- 청소년으로서 동시에 부모로서 탐색과
시도를 지속하고 회복과 자립을 향해감

청소년부모
지원생태계의

연결이 시작되다

- 킹메이커의 전문 현장조직으로서의 성장과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규모 및 다양성 확대
(협력조직 증가)
- 민간단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의 수 :
누적 32곳
- 청소년부모 사례관리 매뉴얼북 제작·배포 :
누적 1,674권

청소년부모
정책 변화의

마중물이 되다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입법·정책간담회 참여
- 국책연구기관,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
핵심 자문활동 수행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조항 신설 (202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2022)
- 재단, 중간지원조직, 현장기관의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 확대

파도

언제든 중첩적 위기에 삼켜지고
더욱 깊이 빠질 수 있어 불안정하던 청소년부모

파도에 휩쓸리지않게 되다

주거는 청소년부모 위기의 악화를 멈추고 불안정을 줄이는 일상의 토대, 핵심 지원임
그 위에서 청소년부모는
종합적·전인적 지원을 받으며 신뢰 관계, 심리적 자원, 자립 역량을 쌓음

상시 위기 상담과 신속 대응
좋은 어른을 만나다

① 청소년부모의 중첩적 위기상황 진단과
맞춤형 대응을 위한 초기 상담·도움 제공

상시 접수된 긴급한 위기에 신속 대응, 종합적인 도움 제공(상담, 사례사정, 자원자원 탐색과 연계, 지원준비 등을 포함)

“가정 해체에서 모든 위기가 출발하고 대물림돼요. 위기 요소를 하나하나씩 해결해주는 건 가정 해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8 시간

상담 및 초기 지원 1인당 최소 소요시간

② 주거지원 기반, 맞춤형 제도권 편입 지원

“전에는 등본상 주소가 없어서 수급비를 못 받았어요. 여기 와서 전입신고하고 기초생계비 신청했고, 여러 수당들도 알게 됐어요.”

49 가정

정부 제도권 편입 성과¹⁾

89%

청소년부모의 정부 지원 편입에 주거지원사업이 기여한 정도 평가 (n=43, '100% 기여' 응답자 비중 70%)

주거 안정과 제도권 편입
안전망에 진입하고 안심처에 살다

③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구축 지원

“주거취약성은 인간생활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여러 연구들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위험이 지적돼 왔다.”

“주거지가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아기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공간이 있다는 게, 하나씩 집을 채워가는 게 설레었어요.”

100%

독립된 거주지를 확보하게 된 청소년부모의 비율

98.3%

성공적으로 지원 주거를 유지한 청소년부모가정의 비율(%) * 2019-2023 연도별 결과보고서 기준

④ 초밀착사례관리²⁾ 맞춤형 상시사례관리 지원

“물고기를 잡는 법을 체득하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잡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하며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제겐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안해주신 걸 대신 다 해주셨어요.”

가장 도움이 된 사례관리 지원의 내용³⁾

1순위 주거 공간 및 생활 환경 관리

2순위 긴급 돌봄, 부모 교육 및 상담

3순위 관계 연결, 취업·경제자립 코칭

자립 연습과 연결의 지속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회복으로 내딛다

⑤ 주거지원·초밀착사례관리를 통한 영역별
청소년부모의 경험과 회복 인식

“‘수급비로 적금은 어떻게 들고,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같이 고민해주셨어요. 개인회생기관도 소개받고, 빚도 많이 갚았죠.”

“엄마가 행복하면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어요. 아이와 유대감, 친밀감이 엄청 커졌어요.”

• 부모의 건강 개선 ⁴⁾	4.4 / 5점	81%
• 자녀의 건강 개선 ⁴⁾	4.5 / 5점	87%
• 부모의 양육·살림 역량 향상	4.5 / 5점	91%
• 자녀와의 관계 개선	4.6 / 5점	95%

4점 이상
응답 비율

청소년부모의 교육 참여 및 성장 지원

• 진로·근로 코칭 만족도 ⁽ⁿ⁼²⁴⁾	4.7 / 5점	100%
• 학업유지·진학 지원 만족도 ⁽ⁿ⁼¹³⁾	4.8 / 5점	100%

(n=43)

15명 고교 이상 학력을 가지게 된 인원 수⁵⁾

6명 대학 입학할 하게 된 인원 수

변화와 사후관리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든다

⑥ 청소년부모의 심리적 자본과 역량 변화 인식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툭 건들면 포기해버렸는데 이젠 찾아보고, 해 보고, 떨어져도 계속 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죄책감이 엄청 심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너무 불안해하거나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4점 이상
응답 비율

• 주거지원사업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감소에 도움이 됐다	4.5 / 5점	93%
• 주거지원사업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증가에 도움이 됐다	4.5 / 5점	95%
• 회복탄력성 향상	4.4 / 5점	84%
• 사회적자본 증가	4.4 / 5점	84%

(n=43)

- 1) 주소지 등록 및 독립 세대주가 되는 것과 함께 출생·혼인 신고, 범죄 연루 상황 대응과 해소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고 공공부조·사회서비스 편입과 안정적 수혜가 가능해진 가정의 수
- 2) 주거 관리, 양육 방법, 자녀 돌봄, 신체·심리건강, 공공서 동행, 진로·근로·학습 코칭을 포함한 전인적, 종합적 지원
- 3) 순위별 최다 응답 항목, 2·3순위 각 2개 항목의 응답률은 동일
- 4) 신체, 정신 건강 개선 정도의 평균(소수점 아래 한자리 동일)
- 5) 주거지원사업 초밀착사례관리의 도움을 받아 고졸검정고시 합격 및 정상등교 지원으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인원

6.4 배



사회성과창출배수

49 가정



참여가정 수

79 명



참여 청소년부모 수

60 명



참여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수

(b) 임팩트내러티브 1 - 청소년부모지원 생태계의 학습과 변화여정

보이지 않던 청소년부모를 처음 조명하다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에 대한 전문가 견해

입법과정, 정책 신설에 미친 기여·도움에 대해) 거의 절대 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적이 없어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청소년부모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작성과 국회정책세미나 개최, 그리고 언론보도 등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모 수가 많다는 걸 드러내주어) 실제 입법까지 가능하게 한 연구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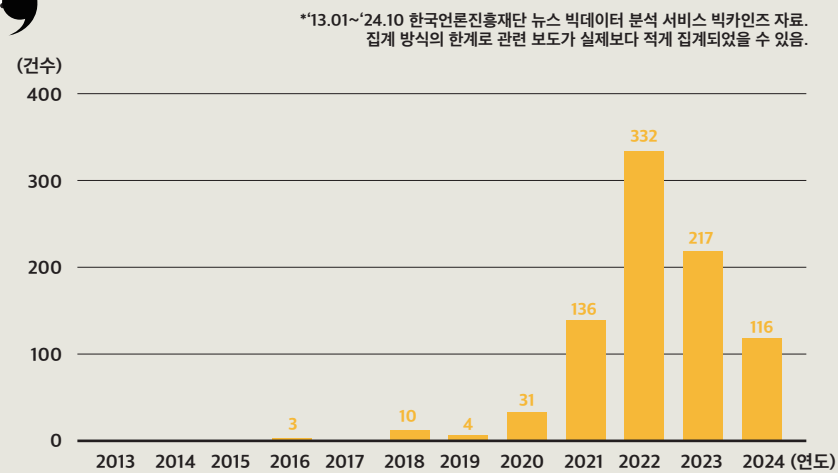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최초의 조사로 길잡이 역할을 해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아름다운재단의 주거영역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당사자의 주거 위기를 해소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여정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이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9)」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 이전까지 '청소년부모'라는 주제는 언론에서조차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보도된 기사들은 주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에 초점을 맞추었고, '청소년인 부모'를 다룬 기사들은 찾기 어려웠다.

2019년의 연구는 '청소년부모'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기존 정책에서 포용하지 않은 청소년부모의 실태를 현장에서 먼저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후 주거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청소년부모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었고 언론에서도 '청소년부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소년부모라는 존재가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정책적·사회적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청소년부모' 키워드 언론보도 수]

청소년부모 지원생태계, 변화를 만드는 연결이 시작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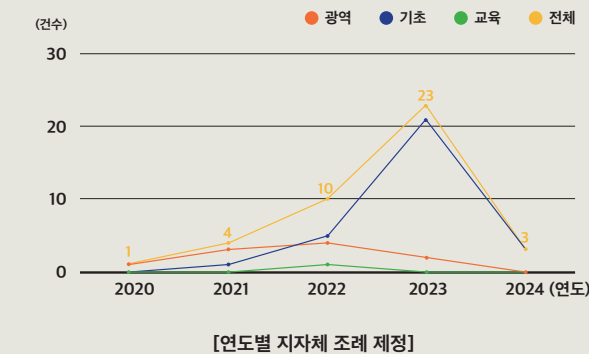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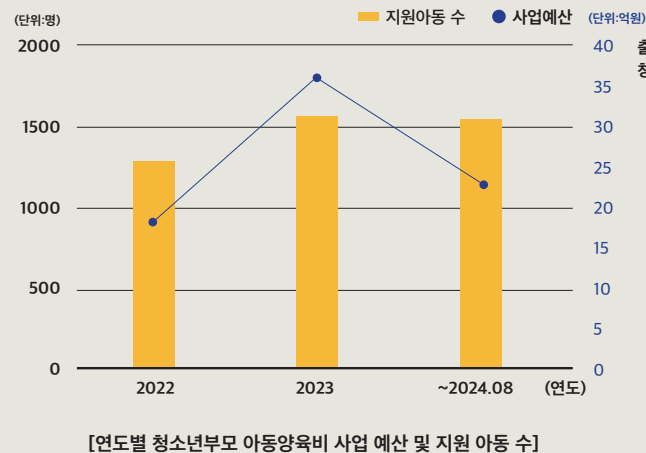
국내에 청소년부모 전문 지원 단체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열악한 인적·물적 자원 속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재단은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통해 키테이머의 조직적 성장을 지원했으며, 나아가 키테이머와 협력해 다른 현장 조직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2020년에는 현장 조직 간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약 30여 기관이 전국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위한 사전간담회, 미혼모·부가족, 청소년부모 지원 전국 민간단체 연대를 위한 간담회, 사례관리교육, 민간 네트워크 생산성교육, 주거교육 등에 참여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은 키테이머와 함께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리매뉴얼'을 제작하여, 키테이머가 가진 현장 전문성과 노하우를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공유했다. 단순히 특정 단체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더 많은 조직들이 청소년부모 이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였다. 매뉴얼북은 현재까지 약 320개의 기관에 약 1,700권 이상이 배포되었으며,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 기관, 언론 등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책적 논의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키테이머는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2022)'을 자체적으로 기획·발간하는 작업과 함께 다양한 현장 조직, 대학,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꾸준히 제공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생태계에 전문 지식을 생성하고 전파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리매뉴얼북, 2021]

청소년부모 정책 변화의 마중물이 되다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을 필두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와 지식 확산, 네트워크 활동, 언론 보도 등이 축적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청소년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청소년부모를 조명하는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제도적 변화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1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제5장의2「청소년부모지원」 신설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정책 대상으로 편입되었으며,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 차원에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 전국적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조례가 확산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0곳, 기초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30곳 등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청소년부모 조항 신설)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 의원실 관심 촉발 → 미디어 보도 → 입법 논의 가속도 → 최종 입법**의 프로세스가 실행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당시 킹메이커가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정책대상자의 현황이 파악되고, 현장에서 열심히 주력하신 덕분에 국회 상임위에 서도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었고, 신속히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건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부모의 지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동성 또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청소년부모가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허민숙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c) 임팩트내러티브 2 - 청소년부모의 변화 여정

좋은 어른을 만나다

“부모님이란 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못 해본 게 너무 많았는데 선생님들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중략) 제가 수술했을 때 보호자 이름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보호자가 없는데요. 근데 배대표님이 어딜 가든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자기 이름 말하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청소년부모 A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하는 시간은 청소년부모가 또 다른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회복과 자립을 위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된다. 킹메이커는 청소년부모에게 '의지할만한 좋은 어른'으로서 함께한다.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엄격한 선생님처럼 청소년부모가 자녀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부모의 위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건강 위기, 주거 불안정, 무엇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관계 기반이 미흡한 상태는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그 위기의 수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기 상담 후 당사자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킹메이커는 1)초기 상담, 2)사례사정, 3)지원 자원 탐색 및 연계, 4)지원 준비 및 시작의 4단계로 초기 진단과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상담 이후 위기 해결을 위한 기초 지원 및 신규 지원 탐색, 연결, 착수의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부모를 만난 당일부터 최소 4일 이내에 신속, 정확한 위기 대응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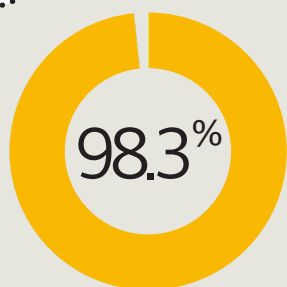


안전망에 진입하고 안식처에 살다

“청소년부모는 집의 크기나 구조에 맞는 가전 제품을 적절히 구매하는 것이 어렵고 어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집에 맞지 않는 크기의 가구를 들어서 공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세탁기는 있는데 정작 드라이기는 없어서 아이의 젖은 머리조차 말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기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패키지 리스트로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접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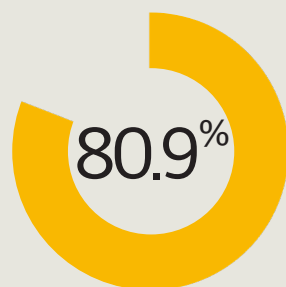
배보은 | 킹메이커 대표

독립된 주소지를 확보하고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단순히 거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립 기반이 부족한 미성년·초기 청년인 청소년부모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절실하다. 킹메이커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양한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며, 청소년부모가 주거 자립을 위한 사회적·법적 지위를 획득, 전환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67%는 '100% 수준의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19~2023년 5년 동안 킹메이커를 통해 긴급 주거공간 및 주거상향 지원을 받은 청소년부모 중 98.3%가 예정된 거주 기간을 모두 채워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들은 가장 도움이 된 지원 요소로 '주거 공간 및 생활 환경 관리'를 꼽았다. 하지만 청소년부모의 높은 주거 만족도는 단순히 '공간'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낯선 공간이 단순한 거처가 아닌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지원 대상 청소년부모 중
거주 기간을
모두 채운 가정의 비율(%)

*2019~2023
연도별 결과보고서 기준 집계



'주거 공간 및 생활 환경 관리'가
가장 도움이 된 지원이라고
답변한 비율(%)

*2019~2024년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3)



주거지원사업은
귀하가 정부 지원을 받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평균값)

*2019~2024년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3)
**설문 참여자의 67.4%가 '100%'
라고 응답함.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회복으로 내딛다

위기 임신과 출산, 가족 간의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 게다가 영아 자녀와 함께 주거 불안을 겪거나,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부모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주거지원사업은 의료비 및 기타 치료 지원을 제공하며, 청소년부모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돕는다. 또한, 돌봄과 양육을 함께 지원하여 부모가 회복 과정 속에서도 자녀와의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신체 및 심리정서적 건강의 개선과 부모로서의 역량 등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신체 및 심리정서적 건강개선]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신체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81.4%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내 자녀의 신체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88.4%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심리정서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81.4%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내 자녀의 심리정서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86.1%

[청소년부모의 역량 및 자녀와의 관계 변화]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양육역량(아이를 잘 키우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90.7%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살림관리(가정을 잘 돌보고 생활환경을 관
리하는 능력) 역량은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90.7%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와 자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더욱 좋아졌다.

95.4%

*2019~2024년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3)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비율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회복으로 내딛다

한편, 연구팀이 수행한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원사업 신청 당시 청소년부모의 학력 상태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재학 중,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중·중퇴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부모는 미성년자로서 여전히 기초적 학습을 채워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가정 형편이나 양육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우선시하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에 킹메이커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진학 지원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돌봄과 교육까지 함께 고려하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의 학습과 성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소서 쓰는 거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정보도 찾아주시고, 입학할 때도 같이 가주시고, 상담하러 갈 때도 같이 가주셨어요. 대학 다니다가 전공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제가 뭘 하면 좋을 지 계속 함께 찾아주셨어요.”

청소년부모 J

[청소년부모 맞춤형 교육 및 사회참여 지원 성과]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 및
졸업 조건 충족 인원

15명

학업유지 및 진학 지원 서비스 만족도
(n=13)

100%

대학 입학 성공 인원

6명

근로자립 지원 멘토링 만족도
(n=24)

100%

*2019~2024년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3) 및 사업데이터 기준 집계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비율

청소년부모가 경험한 작은 성취

대표님이 시설을 알아봐주시고 입소할 때도 동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시설에 간 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아이를 베이비박스 이런 데다가 두었을 수도 있어서.. 지금은 ‘00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부모 A

생계급여는 이 정도 들어올 거야. 매 달 이 정도 수급비가 있으니 적은은 어떻게 들고,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쓰자' 하시면서 같이 고민해주셨어요. 개인회생을 해주시는 기관도 킹메이커에서 소개해주셨고, 거기에 연락해서 빛도 많이 갚았어요.

청소년부모 C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오로지 저 혼자 양육하라고 했으면 제가 먼저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킹메이커를 알게 되면서부터 '나도 해보자. 내가 남들만큼은 못 해줘도 부족하지 않게는 키우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거니까요.

청소년부모 B

저는 원래 돈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다 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와서는 가계부 쓰는 법도 알려주시고 재정 관리를 도와주셔서 저축을 하게 되었어요. 지원사업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지금까지도 모으고 있어요.

이게 가장 뿌듯한 일 같아요

청소년부모 K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다

청소년부모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면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킴메이커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왔다. 양육과 재정 관리, 학업, 진로 등의 영역에서 작은 성취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이를 통해 위기를 마주할 힘을 기르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돕고자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돕는 사람'으로 전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부모들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양육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전환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킴메이커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소년부모 가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풍, 여행, 명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주거지원사업으로 만난 청소년부모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로서 다른 청소년부모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안하기도 한다. 주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에게 '미래'란 더 이상 불안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갈 수 있는 여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청소년부모의 긍정적인 심리적 인식 변화]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회복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83.7%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지금은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든 편이다.

90.7%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나의 사회적자본은 전반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83.7%

주거지원사업 참여 이전에 비해
지금은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희망,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난 편이다.

93.0%

*2019~2024년도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3)
**5점 척도(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만점 중 4점 이상 비율

Q

청소년부모가 말하는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약간 불투명한 유리? 닦으면 가장 빛나는데, 닦지 않은 상태에
서는 빛나지 않는 거예요. 잘 다듬어주고 닦아주면 가장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청소년부모 B

청소년부모는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라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감사한 것
이지만 아이 공개 수업이 있을 때는 좀 많이 그런 느낌이 있어
요. 저는 청소년부모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청소년부모 D

청소년부모는 누구보다 멋진 엄마, 부모라고 생각해요.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
니죠. 다들 자기 인생 포기하고 아기들한테 다 바친 거니까 멋진
부모지요.

청소년부모 F

청소년부모는 슈퍼맨이다. 슈퍼맨은 가장 힘이 세고 정의롭잖
아요. 청소년부모도 가장 힘이 세요. 누구보다 어려운 걸 해낼
수도 있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도 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슈퍼맨이에요.

청소년부모 O

“

00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어두운 사람이었
어요. 산전우울증이 심했었고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근데 주거지원
을 받고 킴메이커를 알게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내
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이 생기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나도 다른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들
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정기적으로 미혼모
모임에 가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미혼모도 있고 한부모도
있어요. 다른 엄마/아빠들이랑 만나서 모임을 가지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요. 엄마들이랑 친해지면서 저도 도
울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반찬 같은 걸 행여주고
해요. 저보다 나이 어린 미혼모도 있더라고요.

청소년부모 B

배대표님은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사
람,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배대
표님처럼 되자. 여유가 생기면 우리
보다 힘든 가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
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롤모델과 같
은 사람이에요.

청소년부모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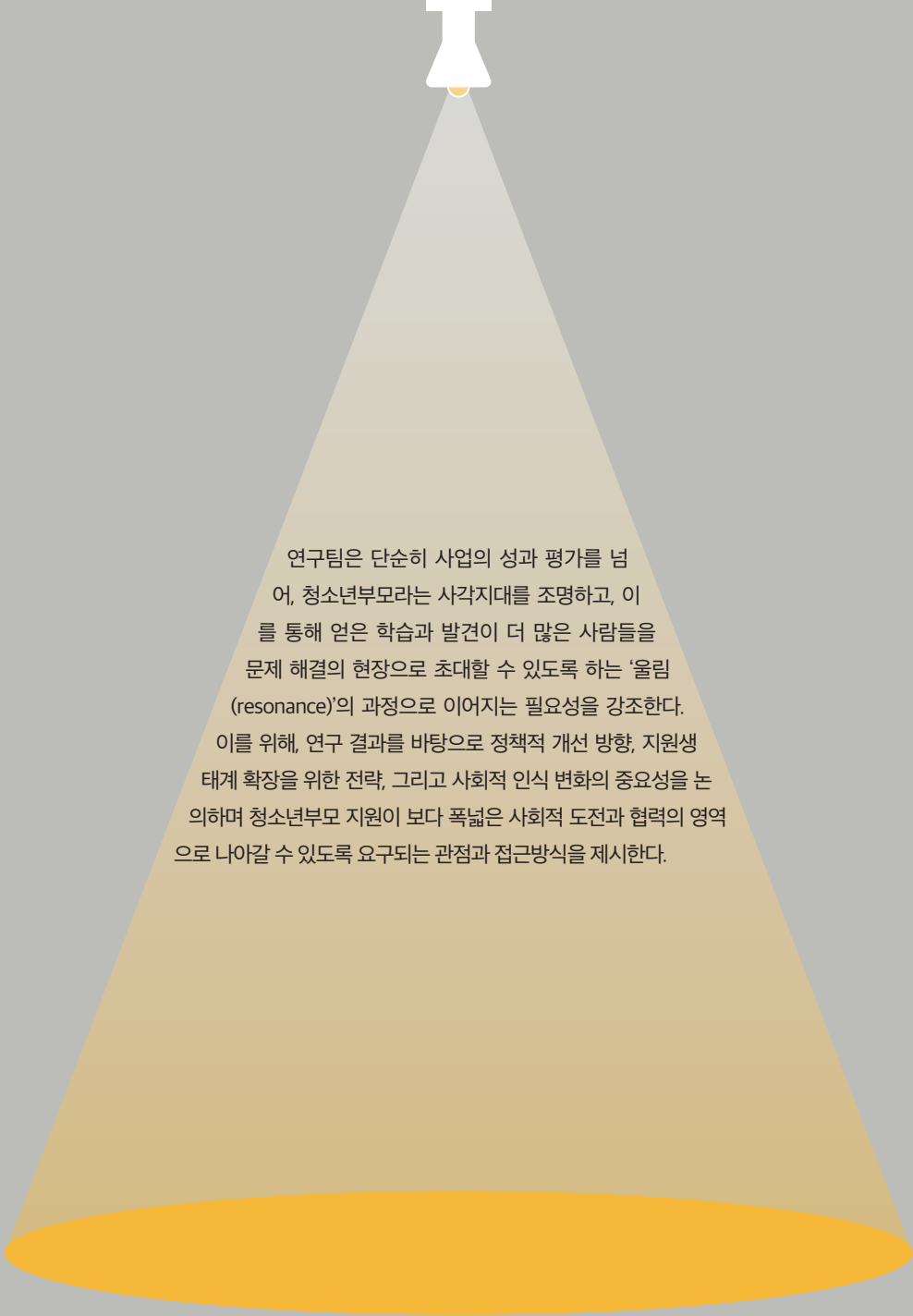
(d)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의 주요 변화 히스토리

청소년부모
지원생태계
연혁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연혁



결론 및 제언



연구팀은 단순히 사업의 성과 평가를 넘어,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학습과 발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울림(resonance)’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 방향, 지원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도전과 협력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되는 관점과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1 연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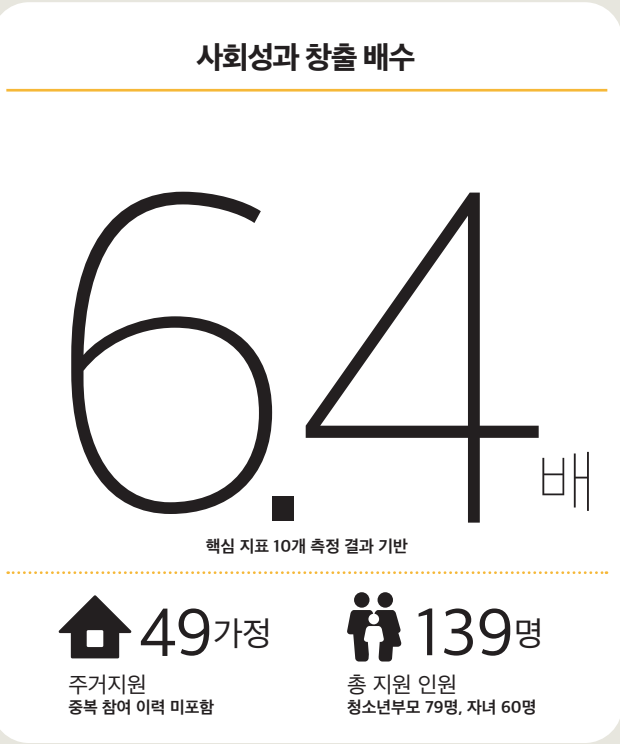
(a) 문제 해결 지원 체계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는 청소년부모가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존 복지체계에서 사각 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취업, 심리·정서적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모델을 설계한 것이다. 연구팀이 분석한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의 핵심 특징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체계 구축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청소년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대응 시스템 마련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부모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 설계, 현장 조직 역량 강화 및 정책 제언/생태계 조성 지원 킹메이커 맞춤형 지원 체계를 설계하고 현실적 필요에 기반한 개별 지원 제공, 청소년 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 체계 정교화
2. 긴급 지원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구조	위기 개입 및 장기 지원의 이중 구조 119응급하우스를 통해 긴급 상황 개입 후, 인큐베이팅하우스 및 정부 지원제도 편입을 지원하여 최대 2년간 자립 준비 기회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 운영 부모 교육, 생활 관리, 재정 교육, 진로 상담 등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춘 탄력적 지원 제공 가정 단위 지원 모델 구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청소년부모가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의 연속성 확보 단순한 일시적 보호를 넘어,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3.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변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청소년부모 이슈의 공론화 및 정책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현실을 가시화하고, 정책·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명 및 확산 역할 수행 연구 보고서 및 사례관리 매뉴얼 제작 주거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정리하고, 다른 현장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 지원 생태계 확장 및 협력 강화 민간·공공기관 및 다양한 지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 대응 기반 마련

(b) 사회성과 측정 결과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 운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이 개별 가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성과 측정 체계를 세 가지 핵심 가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한 맞춤형 종합 지원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과 지원 생태계 안에 만들어진 변화 창출 기반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변화 및 문제 해결 기반 조성의 가치를 측정하여, 주거지원사업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현장 조직 간의 연결 촉진을 위해 수행한 활동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사회성과 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팀은 정량적 데이터(사업 운영 자료, 사례관리 데이터, 정책 자료 등)와 정성적 데이터(청소년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를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청소년부모 지원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 10가지 핵심 사회성과지표
- 청소년부모 대상 맞춤형 종합 지원의 가치
- ① 청소년부모 위기 상황 초기 진단 및 신속 대응 지원의 가치

② 청소년부모 학업 및 진학 지원의 가치

③ 청소년부모 대상 상시 사례 관리 지원의 가치

④ 청소년부모 긴급 주거 공간 지원의 가치

⑤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 환경 구축 지원의 가치

⑥ 청소년부모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시드머니 제공 성과
- 청소년부모 관련 인식 개선 및 현장 지원 활동의 가치
- ⑦ 청소년부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직 연결 및 관계 형성 지원의 가치

⑧ 아름다운재단 및 킹메이커가 참여/운영한 언론홍보활동의 확산가치
- 청소년부모 가정 및 지원 생태계 변화 창출 기반의 가치
- ⑨ 주거지원사업을 통한 청소년부모의 제도권 편입 성과

⑩ 청소년부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유입 성과

(c) 임팩트캔버스 및 내러티브 도출

본 연구는 사회성과를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부모와 지원 생태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주거지원사업의 개입 과정과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를 임팩트 내러티브(Impact Narrative)로 정리하였다. 임팩트 내러티브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청소년부모라는 사각지대가 어떻게 드러나고, 지원을 통해 어떤 변화가 발생했으며, 생태계가 이를 통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기록한 자료이다. 지난 6년간 청소년부모와 함께한 여정 속에서 주거지원사업이 만들고, 관찰하고, 학습해온 임팩트 내러티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의 변화	“보이지 않던 청소년부모를 처음 조명하다”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서 인식되지 못했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변화를 만드는 연결이 시작되다”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협력이 촉진되며,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됨. “청소년부모 정책 변화의 마중물이 되다”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요구가 확산되며,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이 열림.
2. 청소년부모 개인 및 가정의 변화	“좋은 어른을 만나다”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기관을 만나면서, 외부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시작함. “안전망에 진입하고 안식처에 살다” 주거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고,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됨.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회복으로 내딛다” 자립을 위한 첫걸음(학업 복귀, 직업훈련 참여, 사회적 관계 회복 등)이 시작됨. “나와 세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다”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함.

② 제언

(a)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확장의 필요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특정 기관(키프메이커)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현장 조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따르면, 개별 가정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이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인 개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변화의 규모(Scale Up)와 깊이(Scale Deep)를 확대하고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 전체의 확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에서 활동할 다양한 현장 조직을 발굴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부모 지원에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현장 전문가, 활동가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들이 조직화된 형태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b) ‘조명’에서 ‘울림’으로 : 연결과 협력 촉진의 중요성

청소년부모를 단순히 조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회적 울림(resonance)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초대하며, 이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팀은 사회성과 측정 및 임팩트 캔버스 개발을 수행하여 청소년부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지식, 경험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단순한 기록으로 남지 않고, 더 많은 도전과 학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 많은 조직과 플레이어들이 이 문제 해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초대 내지 인게이지먼트 전략(invitation or engagement strategy)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키우고,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어드보커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회성과 측정 연구에서 분석한 주거지원사업의 핵심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의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 기반(Supporters Base)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임팩트 캔버스를 더욱 다양한 경험과 학습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현재의 임팩트 캔버스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중요한 지식 기반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임팩트 블루프린트(Impact Blueprint)’, 즉 보다 구체적이고 견고한 문제 해결 전략이자 설계도가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해결 전략이 수립되고, 더 많은 현장 조직들이 이를 참고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c) 사각지대 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부모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제공을 넘어, 보다 정교한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아일랜드 등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담 기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재정 지원과 1:1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 확보, 양육 지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단기 지원을 넘어, 청소년부모의 생애주기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전환점(critical transition points)에 맞춰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목적과 유형의 지원이 새롭게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때, 청소년부모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가정,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가정,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d) 함께 학습하고 고민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네트워크의 필요성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조직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가 직면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지원 제도 역시 당사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조차 변화하는 위기의 양상을 따라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가 당사자의 페인포인트를 충분히 반영하며 고도화되는 과정에서도,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인내의 시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와 문제 해결 방식이 더욱 견고하게 발전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접근법을 공유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집단 학습이 촉진되고, 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부모 지원 생태계의 ‘컬렉티브 임팩트 네트워크’는 청소년부모의 위기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기관, 연구자, 활동가, 정책 결정자 등-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이자 학습과 협력의 파트너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Cottam, H. (2018). Radical help: How we can remake the relationships between us and revolutionise the welfare state. Hachette UK.
- Iansiti, M., & Levien, R. (2004).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82(3), 68-126.
- Kania, J., & Kramer, M. (2011).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9(1), 36-41. <https://doi.org/10.48558/5900-KN19>
- Kania, J., Williams, J., Schmitz, P., Brady, S., Kramer, M., & Juster, J. S. (2021). Centering Equity in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20(1), 38-45. <https://doi.org/10.48558/RN5M-CA77>
- Saltmarshe, E. (2018). Using Story to Change System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doi.org/10.48558/4FVN-0333>
- Van Tulder, R., & Keen, N. (2018). Capturing collaborative challenges: Designing complexity-sensitive theories of change for cross-sector partnership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0(2), 315-332.
- 강지나. (2023).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돌베개.
- 김성식. (2023). 안녕, 열여덟 어른. 파지트
- 김주환. (2023). [아동이슈] “청소년부모, 차별적 시선은 거두고 지원 대상 확대해야 한다”. 아동안전위원회. <https://childsafetycommittee.org/issue/?bmode=view&idx=17395887>
- 남재현. (2019.05.27). “‘심장 박동’ 듣는 순간...’엄마’ 되기로 결심했지만”.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32382_28802.html
- 뉴시스. (2023.06.14). “가출이 범죄로...집 나왔다 ‘피의자’ 되는 청소년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4/119769716/1>
- 아름다운재단. (2023). 아름다운재단 Culture Deck. https://beautifulfund.org/wp-content/themes/beautifulfund/download/beautifulfund_culturedeck.pdf
- 이승진. (2018.03.19). “[10대 부모의 눈물]정부 지원 받으려면..미혼모 택해야 하는 사회”.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31911125441131>
- 이하영, 이근아. (2019.05.20). “임신 뒤 찜질방·모텔 전전...어린 부모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해요”.서울신문. <https://seoul.co.kr/news/plan/TEN/2019/05/20/201905200060006?cp=seoul>
- 임팩트리서치랩,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2024). 2023-2024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청소년 부모 지원 <희망커뮤니티> 임팩트 연구.
- 박미진,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정수연, 유창민, 은주희, 이상정, 허민숙. (2022). 20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보은. (2021). 청소년부모지원 사례관리매뉴얼북.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2022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현안분석 I.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56
- 은주희, 임고은.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아름다운재단.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정. (2023).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19, 47-58.
- 조숙인. (2023).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육아정책연구소.
- 허민숙. (2020). 자녀양육 청소년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NARS 현안분석, 122.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2).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홍덕표. (2002). 지식경제 왜 안되는가. LG주간경제. LG경영연구원. <https://www.lgbr.co.kr/report/view.do?idx=2606>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임팩트연구보고 <조명하다>

발행일	2025년 6월
발행처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발행인	배보은
홈페이지	www.kingmaker.or.kr
지원	아름다운재단
디자인	Y’sworks(www.y-sworks.com)

